19세기 후기 국어에서 의존명사화의 문법화 과정과 역사적 연속성

최 전 승(전북대)

1. 서 론

1.1 이 글에서 필자는 19세기 후기 국어를 구성하고 있는 중부와 남부 지역방언들의 문법 현상 가운데 특정한 통사적 환경, 즉 '관형사형+ 의존명사+ 존재동사'의 구조에서 출현하는 '길'(道), '법'(法), '일'(事), 그리고 '수'(手/數)와 '세'(勢) 등이 문법화를 수행하여 "수단"과 "방법"을 뜻하는 추상적인 의미로 발달하여 가는 과정과 그 역동성을 고찰하려고 한다.[1] 이와 같은 구상적이고 객관적인 자립명사 부류들이 겪게 되는 문법화의 과정에서 음운변화가 여기에 아직 적극적으로 개입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들 성분은 특정한 통사적 구성으로 한정되어 주로 존재동사와 통합되어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따라서 이러한 표현 용법이 19세기 후기의 단계에서 점진적으로 관용적인 구성을 이루고 있으며, 명제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인 인식이 강화된 의미 화용론적 변화의 모습을 보인다.

국어사에서 19세기 후기의 국어는 근대국어의 마지막 단계에 속하지만, 현대국어에서와 같은 다양한 지역방언들의 언어적 분화 현상을 가장 투명하게 보여주는 창문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시기의 지역방언들이 보이고 있는 여러 층위에서의 언어적 특질들은 현대국어의 공시적 방언 분화의 모습을 온전히 갖추어가기 이전의 과도기와 같은 역동적인 과정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지역방언 구조와 분화에 대한 체계적인 고찰이 현대국어를 이해하고, 지역방언의 고유한 형성 과정을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19세기 후기를 전후하여 해당 지역방언의 특질을 반영하는 문헌 자료들이 생산적으로 출현하였고, 여기에 바탕을 둔 연구들이 1980년대와 90년대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다. 이들 방언 자료 가운데, 우선 19세기 후기 전라방언 자료들을 언급 할 수 있다. 1850년에서부터 1910년대 사이에 전주 일대에서 간행된 완판본 계열 자료와, 전북 고창 출신 신재효가 개작한 『판소리 사설집』 여섯 마당이 오늘날 갖고 있는 언어학적 가치는 대체로 19세기 중엽 이후부터 20세기 초반에 걸치는 국어사와 지역 방언사 연구를 위한 구어적 자료라는 데 있다. 종래에 이들 언어 자료에 대한 관찰이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에 한정되는 지역적 방언사적 관점에서 국지적으로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에야 이러한 일련의 완

---

1) 이 글은 국어문학회 2007년도 춘계 전국학술발표대회(2007.6.1-2, 전북대학교)에서의 주제인 <완판본(전주본) 고문헌의 국어국문학적 가치>에 맞추어 "완판본 고소설에 반영된 공시적 언어변이와 역사적 연속성"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초고를 수정하여 제 3장(문법화 과정에서 실현되는 연속변이) 부분만을 확대한 것이다.
초고를 발표하였을 때에 지정토론자로 참여한 윤석민 교수(전북대)와, 홍윤표 교수(연세대), 유수열 교수(전주대)로부터 이 글의 논지 전개에 많은 지적과 도움을 받았다. 다시 수정한 원고를 읽고 꼼꼼하게 검토하여준 김규남(전북대) 선생과 왕문용 교수(강원대), 안주호 교수(위덕대)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러나 이 글이 안고 있는 여러 제약과 문제점들은 필자에게만 국한될 뿐이다.

www.kci.go.kr

판본 계열 자료와, 신재효의 『판소리 사설집』의 일부(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있는 부류들만)가 근대국어 단계의 정식 국어사 자료의 목록으로 본격적으로 등록되기 시작하였다(홍윤표 1994, 1997; 김동소 2003, 2007).

이들 자료에 대한 이와 같은 관심과 주목의 추이는 언어 자료로서 가치와 위상이 점진적으로 재평가되었다는 사실을 뜻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완판본 계열 자료와, 신재효의 『판소리 사설집』에 반영된 당대의 언어는 단순한 지역성을 탈피하여 전반적인 국어사와 방언사 이론의 구축, 그리고 일정한 역사적 단계의 국어의 공시적 연구를 위한 폭넓은 시야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국어의 역사적 자료 또는 지역방언의 공시적 기술 자료로서의 완판본 고소설 계열과 판소리 사설은 전통적이고 동시에 규범적인 언어 자료의 기준에서 보면, 간과할 수 없는 몇 가지 제약과 많은 결점들을 그 자체 안고 있다(최전승 1986:7-13). 그러나 수많은 전통적인 국어사 자료 가운데에서도 비교의 대상으로서 이상적이고, 동시에 완벽한 문헌 자료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19세기 후기 중부방언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전형적인 문헌 자료들은 여기서 특별한 언급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까지 잘 소개되어 있다(이병근 1970, 1976; 이기문 1980). 그러나 필자 자신의 제약으로 인하여, 이 글에서 주로 이용할 중부방언의 자료는 『한어문전』(*Grammaire Coréenne*, 1981)과 그 자매편 『한불ᄌᆞ뎐』(*Dictionnaire Coreen-Francais*, 1880), Gale의 『ᄉᆞ과지남(*Korean Grammatical Forms*, 1894), 그리고 서재필의 『독립신문』(1896.4-1898.12) 등으로 한정시켰다. 19세기 후기와 그 이전의 경상방언의 풍부한 자료는 백두현(1992)에 소개되어 있다. 필자는 19세기 중엽과 후엽에 속하는 경상방언의 자료로, 한국어 학습서로 일본에서 간본과 필사본으로 작성된 『隣語大方』 계통(편무진/岸田文隆, 2005)과 필사본 『漂民對話』(편무진/岸田文隆, 2006), 그리고 『交隣須知』 계통(편무진 2005)의 이본 자료들을 주로 이용하였다.[2)]

1.2 필자가 이 글에서 논의하려는 "수단" 또는 "방법"을 나타내는 일련의 양태성 의존명사들의 문법화 과정과, 19세기 후기 국어의 단계는 현대국어의 공시적 의존명사들의 신분과 형성에 밀접한 유대 관계를 맺는다. 그 근거는 현대국어 의존명사들의 생성과 소멸의 인자는 이미 그 이전 단계 언어의 공시적 구조에 역동적으로 실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수행된 의존명사의 역사적 고찰(이주행 1988)에서나, 근대국어의 의존명사 체계에 대한 공시적 연구(이주행 1987, 왕문용 1988) 등에서 공시적 단계의 의존명사의 범주 설정을 그 선행하거나 후행하는 역사적 단계와 아무런 연관성이나 인과관계의 해명 없이 독자적으로 파악하였다. 동시에 각각의 연구의 전제로서 설정된 의존명사화의 기준을 전부 만

2) 19세기 후기와 20세기 초기에 걸치는 평안도와 함경도 방언의 자료도 여기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지만, 필자의 준비 부족으로 이 글에서 누락되었다. 다음 기회에 보충하려고 한다.

특히, 20세기 초엽의 함북 육진방언은 1901년과 1904년 사이에 Kazan에서 러시아 정교 선교협회가 간행한 다음과 같은 자료에 풍부하게 반영되어 있다. (1) *Pervonachaljnyj Uchebnik Russkago Jazyka dlja Korejcev*(한국인을 위한 초등 러시아어 교과서,1901), (2) *Azbuka dlja Korejcev*(한국인을 위한 철자 교과서,1902), (3) *Russko-Korejskie Razgovory*(露韓會話,1904), 4) *Slova i Vyrazhenija k Russko-Korejskim Razgovoram* (노한회화에 관한 단어와 표현,1904), 5) *Opyt Kratkago Russko-Korejskago Slovarja* (露韓小辭典 試編).

이들 자료에 대한 소개와 검토는 곽충구(1994)를 참조. Ross King(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교수는 세 권으로 구성된 *Russian Sources on Korean Dialects*를 앞으로 간행할 예정인데, 제1권은 비전문가들이 작성한 육진방언 자료들을, 제2권에서는 카잔의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다.

www.kci.go.kr

족시키지 못하면, 그 후보로서 잠재성이 농후하더라도 의존명사의 목록에서 완전하게 배제시키는 경향이 강하였다. 동시에 어느 역사적 단계에서 선행하는 시기에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성분이 의존명사로 분류되었을 경우와, 기존의 의존명사가 다음 단계에서 그 신분을 상실하게 되었을 경우에 "그 신생과 소멸"의 원리(왕문용 2003)에 대한 모색이 최근까지 적극적으로 시도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형태 통사론의 영역에서도 기술언어학이 근간으로 삼고 있는 종래의 전통적인 범주성 이론(categoricity)을 벗어나서, 사회언어학에서 지속적으로 발전시킨 언어변이 이론(variation)의 입장에서 의존명사화의 진로가 개별적 어휘 특성에 따라 점진적으로 완성되어 가는 어휘 확산으로 이해하려고 한다.[3] 이와 같은 관점에서 공시적인 19세기 후기 국어의 언어 현상들은 일종의 "역사성"을 갖고 있음을 필자는 주목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일정한 시기의 공시적 언어 구조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시간 속성을 자체적으로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Lass 1987).

첫째, 19세기 후기의 공시적 언어 구조는 이전의 과거에서부터 그 당시에 이르는 모든 유형의 역사적 변화가 여러 언어 층위에 걸쳐 공시적으로 축적되어 있는 양상을 보인다. 둘째, 19세기 후기의 언어 사실은 동시에 과거라는 시간과 대립되는 공시적인 언어 구조의 체계를 구비하고 있는 의사전달의 수단이다. 셋째, 19세기 후기 국어는 20세기 이후의 현대국어로 이행되어 가는 모든 언어변화의 방향을 그 자체 가리키고 있다.

또한, 필자는 이 글에서 19세기 후기 지역방언 자료에서 추출된 몇 가지 유형의 의존명사 부류들을 수의적 교체로 실현되는 언어변이(variation) 현상으로 주목하려고 한다. 언어변이 는 공시적 언어 구조 내부에서 변화 이전의 보수형과 새로운 변화를 수용한 개신형 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형성된다. 동시에 언어변화의 실현은 먼저 언어변이의 과정을 그 이전 단계에서 거친 결과이다(Chambers 2003). 이와 같은 언어변이는 사회언어학적 변항(계층, 연령, 성별, 話題 등등)과 상호 연관되어 있음이 원칙이다(Labov 1972).

따라서 필자는 19세기 후기 국어 또는 그 이전 단계에서 일정한 자립명사가 문법화를 거쳐 의존명사화를 보이는 시작과 그 진행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사실에서 이해하려고 한다. 첫째, 의미변화의 원리에 의해서 해당 자립명사가 뚜렷한 의미의 분화를 거쳐 추상화되는 경우. 둘째, 통사적으로 제한된 구성으로만 출현하여 관용적으로 쓰이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 또한, 필자는 의존명사는 자유로운 통사 환경에 출현할 수 있는 해당 자립명사와 일정한 기간 또는 지속적으로 공존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한다. 지금까지 논의된 문법화의 몇 가지 기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의미변화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원칙이다(Fisher 2007:116). 일정한 근원 형태소에 해당 의미변화가 일어난 연후에 비로소 형태 통사적인 구조에서의 변화가 뒤따르게 된다. 여기서 일어나는 의미변화의 과정은 문맥 의존적이기 때문에, 상황과 문맥에 따라 화자와 청자에 의해서 새롭게 형성되는 재해석으로 파악된다(Heine & Kuteva 2002).

지금까지 필자가 제시한 이와 같은 몇 가지의 관점은 이 글을 작성하는 기본적인 전제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필자는 19세기 후기 국어방언 자료에 반영된 몇 가지 문법 형태들을 진행 중에 있는 문법화의 관점으로 관찰하려고 한다. 여기서 논의될 의존명사화의 대상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부류로 한정된다. 첫째, '-(으)ㄹ+ 의존명사+ 존재동사'의 통사 구성을 갖춘 양태성 부류인 '길'(道), '법'(法), '일'(事), '수'(手/數), '세'(勢) 등이 서로 맺고 있는

3) 범주성 이론(axiom of categoricity)과 언어변이(variation)에 대한 상세한 논증과 대조는 Chambers 2003:26-38)을 참조.

www.kci.go.kr

유기적 관계로부터 파생된 기능의 축소와 확대. 둘째, 고정화된 '관형사형+ 의존명사'와 같은 통사 구조에 등장하는 시간성 의존명사 부류인 '마듸'(時節), '도막', '동안' 등의 소멸과 새로운 형성의 과정. 이런 부류의 문법 형태들은, 대부분의 의존명사가 보여주는 속성처럼, 19세기 후기 국어 지역방언들의 공시적 상태에서도 자립명사와 의존명사, 그리고 접미사의 문법 범주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이들 문법 형태들이 19세기 후기라는 역사적 단계에서 20세기 전기의 단계로 옮겨 오는 통로에서 실현시키는 문법화 연쇄(grammaticalization chain)의 역동적 과정을 제시하려고 한다.

2. 의존명사 설정 기준과, 진행 중에 있는 의 사의 문법화

2.1 19세기 후기 국어에서 의존명사 '길'의 경우

일정한 단계의 언어의 문법체계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생성되어 가는 과정의 중간 단계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자체 끊임없는 변이와 변화의 과정을 보인다. 따라서 의존명사와 같은 언어 형식을 배당하는 문법범주의 설정 역시 예외가 아니다. 현대국어의 의존명사의 설정 기준과 통합성 및 그 동요 상황을 검토한 고영근(1989)이 <휘갑>에서 내린 결론 가운데 다음과 같은 한 가지의 사실은 이러한 사정을 잘 나타내고 있다. "현대국어의 의존명사는 동요하고 있다."(109쪽). 이러한 동요는 전형적인 문법화의 과정 속에서 다음과 같은 변이와 변화의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다. (ㄱ) 자립 실질명사→의존 의존명사, (ㄴ) 의존명사→활용어미나 조사.[4)]

또한 현대국어에서 의존명사의 식별 기준(고영근 1989:85-86, 이주행 1988:31-32, 임동훈 1991: 21-22, 서정수 1996: 467-468)은 큰 틀에 있어서 거의 대동소이한 것이지만, 이러한 기준의 검증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립된 의존명사의 유형은 연구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5)] 그러한 해석상의 차이는 언어 내적인 요인보다는 의존명사의 의존성의 정도, 분포상의 제약을 이해하는 태도, 앞서거나 뒤에 오는 성분과의 통합 관계, 또는 다의성을 용인하는 한계 등의 요인에 따라서 결과된 것이다.[6)] 예를 들면, 이병모(1995: 33-55)와 허웅(2000:259)에서 의존명사로 설정된 '길'의 경우에 고영근(1989), 임동훈

---

4) 현대국어의 의존명사들이 밟아 온 문법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안주호(1997)는 그 문법화의 단계를 정도성과 역사적 진행 방향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문법화 제1단계: 의존명사화(대상을 지시하던 구상적 의미가 은유나 환유와 같은 기제를 거쳐 추상화 또는 일반화되는 과정), 제2단계: 접어화(문법 형태의 기능을 하지만, 형태·통사적 구성으로 완전한 이탈을 하지 못한 단계), 제3단계: 어미, 조사, 접미사화(형태 통사적 구성에서 완전한 문법화의 완료). 마지막 제3단계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의미론의 측면에서 원래의 명사로부터 유연성이 사라지고, 문법적 의미만 보유하게 된다.
국어 명사의 문법화 과정에서 의존명사화에 대한 또 다른 논의는 김현정(1997)을 참조.

5) 고영근(1989:85-8)에서 종합된 현대국어 의존명사의 확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의존성을 띨 것, 2) 통합관계에 제약이 있을 것, 3) 관형사형에 붙을 것, 4) 조사를 취할 것. 서정수(1996:467-468)는 고영근(1989)의 기준 위에서 으뜸 기준(의존명사는 반드시 앞의 관형어와 어울린다.)과 보조기준(의존명사는 일반으로 그 뒤에 조사나 지정사를 수반한다.)을 제시하였다. 특히 서정수(1996:468)에서는 관형어의 종류를 통상적인 (ㄱ) 관형사, (ㄴ) 용언의 관형형, (ㄷ) '체언+ 의'(체언의 관형형) 이외에, (ㄹ) 체언 자체(앞 성분의 체언 형태에 '의'가 상례적으로 탈락한 것으로 파악하기 때문)와 (ㅁ) 용언의 명사형(용언+ 명사화소 '기')을 첨가하였다.

6) 왕문용(2003:274)은 지금까지의 통시적 및 공시적 연구에서 연구자들에 따른 의존명사 목록의 불일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인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첫째는 중세국어나 근대국어의 경우에 문헌 자료의 제약. 둘째는 현대국어의 경우에 연구자들이 구사하는 방언이나, 언어 직관의 차이.

www.kci.go.kr

(1991), 서정수(1996) 등에서 이 성분은 제외되어 있다(최형용 1997: 14-15).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병모(1995)에서 의존명사로 파악된 '법'(法)은 대부분의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서 동일한 관점이 이미 적용되어 있으나, 이주행(1988)에서는 자립명사로 파악되었다. 그 반면에, 허웅(2000)에서 의존명사 목록을 설정하는 자리에서 '법'은 취급되지 않았다.

어느 실질명사가 수행하는 의존명사화 또는 어미와 접사화로의 진행 과정은 문법화의 전형적인 점진성(gradualness)을 전제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국어의 의존명사들이 이전 단계와는 아무런 통시적 연관성이 없이 독자적으로 출현하였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근대국어 또는 그 이전의 단계에서부터 그러한 문법화 과정이 출발하여 현대국어로 지속되어 완결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근대국어에 사용되었던 의존명사의 목록을 점검하고 추출하는 과정에서 왕문용(1988:26)은 "현대국어에서만 의존명사"로 기능하는 항목들 가운데 '법'을 포함시켰다. 또한 왕문용(1988)에서 '법'은 근대국어의 단계에서도 자립명사로만 관찰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논리에 의하면, '법'은 현대국어 단계에 진입하여야만 의존명사로의 문법화가 급진적으로 수행된 것이다. 의존명사의 통시적 고찰을 시도한 이주행(1988:53)에서 잠정적으로 선정된 "근대국어 의존명사 검증 목록"에서 '법'은 보이지 않지만, '길'(道)은 후보로 등장하여 있다. 그러나 이주행(1988)은 근대국어에 사용된 '길'의 용례들 가운데 맥락에 따른 의미의 전이(도로>방법, 수단)를 제시하면서(아래의 예문 {2}를 참조), 이 형태는 원래의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관형어의 선행을 수의적인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자립명사의 범주로 간주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길'과 '법' 형태는 표출 자료의 형식에 따라서 이미 근대국어인 17세기의 단계에서부터 문법화의 과정이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7] 「해남윤씨 어초공파 고문서 간찰 부류」 가운데 아우가 누이에게 보낸 한글 편지(1664년 작성)에 '길'의 문법화의 이른 단계를 보여주는 다음과 같은 예가 등장하고 있다.

(1). 아ᄆᆞ도 그것 지어 제 귀실도 홀 길히 업다 ᄒᆞ니 민망ᄒᆞ여 ᄒᆞ나이다. 예 잇ᄂᆞᆫ 누의 동싱들도 이것ᄃᆞᆯ 가지고 돌님제(祭)도 홀 길 업ᄉᆞ니(127쪽).[8]

실질명사 '길'의 쓰임 가운데 일부가 일정한 형태 통사적 환경으로 반복되어 정형화되기 시작하는 모습은 근대국어의 마지막 단계인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중엽의 국어에 적극적으로 등장하였다(아울러, 이주행 1988: 54-55도 참고).

(2)ㄱ. 요ᄉᆞ이쳐로 일이 만흔ᄃᆡ 그런 긴치 아닌 일ᄭᆞ지 校擧ᄒᆞ려ᄒᆞ다가ᄂᆞᆫ 견ᄃᆡᆯ **낄**이 업ᄉᆞ외 (1790년간, 인어대방 1.13ㄱ),

---

7) 17세기 국어의 단계에서 '긿'(道)의 쓰임 가운데 18세기와 19세기 국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일정한 통사적 구성의 제약이나, 추상적인 의미로의 확대를 거친 용례들은 간본 문헌 자료에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17세기 국어사전』(홍윤표 외, 1995 참조). 이러한 사정이 자료상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르지만, 격식체 중심의 문어와 관련하여 일단 '긿'의 문법화로의 수용은 18세기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보편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責罰이 이몸의 더으면 뉘옫출 길히 업스리라(責罰이 加身ᄒᆞ면 悔之無路ᄒᆞ리라, 1736년. 초간 여사서 2.19ㄴ)=칙벌이 이몸의 밋치리니 뉘쳐홀 질이 업시리라(1907년 중간본 여사서 3.16ㄱ).

8) 이 한글편지의 자료와 해독은 전적으로 한국학 중앙연구원 편『조선 후기 한글 간찰(언간)의 역주 연구』 1(2005, 태학사)을 이용하였다. 여기서 위의 예문은 다음과 같이 현대어로 해독되었다. "아마도 그것 지어(보았자) 제 구실도 할 길이 없다고 하니...여기 있는 누이동생들도 이것들을 가지고서는 돌림제사도 할 수 없으니.."(130쪽).

www.kci.go.kr

ㄴ. 이 곧은 즌폐ᄒᆞᆫ 村이오라 아모 걷도 어들 길이 업ᄉᆞ외(상동.1.14ㄱ),
ㄷ. 아모 일이라도 精神이 만하야 일우지 날 곧치 정신 업슨 사ᄅᆞᆷ은...成就ᄒᆞᆯ 길 업ᄉᆞ외(상동.3.13ㄴ),
ㄹ. 幹事로온 사ᄅᆞᆷ이 맏다온 일을 竣事틀 몯ᄒᆞᆫ 젼의 도라갈 길이 업서(상동.4.11ㄴ-12ㄱ).

(3)ㄱ. 비록 扁鵲이 이셔도 救ᄒᆞᆯ 길이 업습ᄂᆞ니(아스톤본 필사본 인어대방 1.19ㄴ),[9]
ㄴ. 나타나지 아넌 사ᄅᆞᆷ은 잡을 길이 업ᄉᆞ매(상동.2.17ㄱ),
ㄷ. 날 곳치 情神 업슨 사ᄅᆞᆷ은 成就ᄒᆞᆯ 길이 업ᄉᆞ외(상동.4.10ㄱ),
ㄹ. 여러 날 官出入을 못 ᄒᆞᄋᆞᆸ기로 뵈올 길이 업ᄉᆞ와(상동.6.22ㄱ),
여러 날 관츌입을 못 ᄒᆞ고 뵈올 ᄭᅳᆯ이 업써(정정 인어대방 9.9ㄴ).

근대국어 단계에서의 '길'의 용례는 일찍이 Ramstedt(1939:109-123)에서부터 현대국어에서 특징적인 일종의 의존명사(special postparticipial nouns)의 하나로 파악된 '--는 길에'와 같은 통사 구성으로 아직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의존명사 '길'과 관련하여 허웅(2000:259)에서 논의된 '--던 길로'와 같은 통사적 제약의 형성도 이 시기에서 아직 찾을 수 없다.[10] 그러나 위의 예들이 보이고 있는 미래성의 시제 또는 잠재성의 양태를 갖춘 '--ㄹ 길이 없다'의 통사적 구성은 이미 이 시기에 확립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고정된 통사 구성에서 '길'은 이주행(1988)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전형적인 은유화에 의한 '도로 > 수단, 방법'의 의미전이가 수행되었음을 보인다.

고영근(1989:73)은 위의 예문 (2)와 (3)에서 보이는 통사적 환경과 동일한 현대국어에서의 '길'의 용례(--(으)ㄹ+길이+없다)를 제시하면서, 이 성분은 자립명사의 신분을 여전히 갖고 있으나, 일정한 통사적 구조에서 의존명사성을 발휘하거나, 또는 의존명사적인 성격이 농후하다고 판정하였다.[11]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고영근(1989)은 현대국어에서 '길'이 갖고 있는 완전한 의존명사의 자격을 모든 통사적 환경에서 인정하지 않았다. 그 주된 근거는 형태음운론의 영역에서 의존명사가 자립명사와 대립되어 보이는 고유한 행위를 '길'의 경우는 실현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다. 즉, 의존명사 가운데 '-(으)ㄹ'로 시작되는 모든 어미들은 반드시 경음화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대국어에서 '길'의 경우는 경음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아직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국어어의 경음화 현상의 적용 유무에 근거한 그와 같은 문법적 사실의 판단은 다분히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한다. 특히, 역사적 자료에 반영된 동일한 환경에서의 경음화 유무는 표기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경음화 현상의 개입 유무가 의존 명사적 신분을 결정하는 중요한 논거가 된다고 한다면, 위의 18세기 후기의 자료에서 추출된 예문 (2)ㄱ에서 "--견ᄃᆞᆯ **ᄭᅳᆯ**이 업ᄉᆞ외"(1790년간, 인

9) 아스톤(W.G.Aston)본/경도대학문학부 소장 『인어대방』(필사본)에서 이끌어낸 자료는 편무진/岸田文隆 공편 『인어대방』(해제, 색인, 원문, 2005, 불이문화사)을 이용하였다. 해제에 따르면, 각권의 필사본들은 그 필사 연대가 1841년에서부터 1846년에 해당된다고 한다. 이 자료에 등장하는 '길'은 자립명사(道,路)의 용례와, 통시적 제약을 갖고 있는 의존명사의 용례를 아울러 보인다. 의존명사 '길'의 경우에 그 의미는 '방법'에 해당되며, 이에 대한 일본어는 mitsi(길, 도로/방법)로 대응되어 있다.

10) 허웅(2000:259)은 '-는/던 길에'와 같은 통사 구성에 쓰이는 '길'의 의미는 '곧 바로'이며, 그 뜻이 매우 추상적이어서 의존명사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기술하였다. 이와 같은 설명에서 우리는 구상적 의미에서 추상적 의미로의 변화와, 이어서 관용화된 통사적 제약이 허웅(2000)에서 의존명사 설정의 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 고영근(1989)은 "의존성"의 기준에서 이와 같은 '길'의 범주에 포괄되는 다른 예들로 '모양, 정도, 셈, 마음, 판' 등을 제시하였다. 고영근(1989:73)에서 예시된 현대국어에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길'의 예는 다음과 같다. 알 **길**이 없다. cf. 가는 길을 모른다. 그렇게 해결하는 길은 있다.

www.kci.go.kr

어대방 1.13ㄱ)와, 19세기 후기의 같은 성격의 필사 자료에서 인용한 (3)ㄹ. “뵈올 찔이 업써”(1883년간, 정정 인어대방 9.9ㄴ)의 사례들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고영근(1989)에서의 논리를 이용하면, 이 시기의 자료에 ‘-(으)ㄹ 낄/찔’과 같은 경음화의 현상의 반영은 ‘길’이 의존명사의 신분에 이르렀음을 알리는 것이다.

‘길’이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용례를 통하여 ‘길’의 문법화의 정도를 측정한 안주호(1997:56-57)는 위의 예문 (2)와 (3)으로 소급될 수 있는 통사적 환경에 출현하는 현대국어에서의 ‘길’의 경우(“지갑을 다시 찾을 길이 없다.”)는 원래의 구상적인 의미에서 단순히 확장된 의미로 쓰인 것이기 때문에, 이 성분이 의존명사로 쓰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안주호(1997)의 설명에 따르면, 현대국어에서와 동일하게 위의 예문 (2)와 (3)에 등장하는 ‘길’의 경우는 “단순한 비유적 표현일 뿐”이다(57쪽, 각주 45).[12] 그러나 문법화 현상, 특히 자립명사에서 의존명사로의 범주 이동은 문맥에 따른 은유화나, 환유화 같은 의미 전이 과정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전제를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안주호(1997)에서 현대국어에서 ‘길’의 쓰임 가운데 ‘-(은)ㄴ/던 길이다’에서만 통사적 제약의 개입을 인정하는 반면에, ‘-(으)ㄹ+ 길이+ 없다’와 같은 역사적으로 오래 전에 관용화되어 사용되는 통사적 환경은 그 제약을 무시한다는 것은 기준의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19세기 후기 단계에서 중부와 전라방언을 대변하고 있는 여러 유형의 자료들에서도 일정한 틀로 정형화되어 가는 통사적 제약 ‘-(으)ㄹ 길이 없다’ 에 사용된 의존명사 ‘길’은 맥락에서 형성된 의미의 재해석을 거쳐서 추상화된 “수단”, 또는 “방법”의 영역으로 전이가 이미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13]

(4)ㄱ. 그럴 길 잇습ᄂᆞ잇가(moyen, 1881년 한어문전, Exercies Gradués,39),[14]
ㄴ. 이 일을 보시매 그 가ᄆᆞᆰ을 알 길이 업사신즉(상동.17:4),
ㄷ. 노친 ᄒᆞᆫ 분을 봉양할 길이 업슴으로(상동.18:4).
(5)ㄱ. 너를 잡부러 와쓰되 너를 보니 잡아갈 길 젼이 업다(병오,춘.15ㄴ),
ㄴ. 두 달리ᄂᆞᆫ 장독니 나셔 촌보ᄒᆞᆯ 길 젼이 업고(박순호본 99장본 춘향가 84ㄱ),
ㄷ. ᄂᆡ가 만일 업거듸면 우리 부친 나문 ᄒᆡ를 맛칠 기리 업사오며(완판,심청,상.16ㄱ),
ㄹ. ᄒᆡ마도 나은 자식 셔러나믄 너머 되니 입필 질리 젼혜 읍셔(김문기 소장 26장본 흥보전 2ㄱ),
ㅂ. 츙열은 모친을 일코 물의 ᄲᅥ져 살 질리 업셔써니(충열,상.20ㄴ).

따라서 현대국어에서 미래성 또는 잠재 가능성에 근거한 화자의 인식 판단과 같은 양태성을 보유한 의존명사 ‘길’의 출발은 적어도 문헌 기록상으로 17세기 또는 근대국어 후반

12) 그 반면, 안주호(1997:56-57)는 ‘길’의 쓰임에 세 가지의 통사적 제약(ㄱ. 명제의 보문을 반드시 취한다, ㄴ. 상황 의미로 쓰일 경우 ‘-(으)ㄹ’을 보문소로 취할 수 없다, ㄷ. 주어나 목적어로 쓰일 수 없으며, 후행 성분은 ‘이다’만 취한다.)이 적용된 ‘--는/던 길이다’와 같은 유형은 이 성분이 의존명사에 접근한다고 본다. 그러나 안주호(1997)는 이러한 통사적 환경에 출현하는 ‘길’이 아직도 자립명사와 의미의 유연성이 강하게 감지되기 때문에 완전한 의존명사로 설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판정하였다.

13) 『한어문전』(1881)의 자매편인 『한불ᄌᆞ뎐』(1880)의 ‘길’ 표제어에서도 ‘ᄒᆞᆯ 길이 잇다’와 ‘ᄒᆞᆯ 길이 업다’와 같은 통사적 환경에서는 그 의미에 “il y a moyen de faire; on peut faire”와, “il n'y a pas moyen de faire; on ne peut pas faire” 라는 설명이 첨부되어 있다. 20세기 초엽의 『신소설』 부류의 전체 언어 자료에서도 ‘(으)ㄹ 길 잇/없다’의 통사적 구성이 31개 항목으로 추출된다. “ᄆᆡ씨가 이 구셕의 와 잇ᄂᆞᆫ 것을 알 길 업슨 즉(1911년간, 월하가인, 7).” 등등.

14) 『한어문전』(*Grammaire Coréenne,* 1881)에 부록으로 첨부된 Exercies Gradués(E.G. 수준별 읽기연습) 부분에서 인용한 예들이다.

www.kci.go.kr

18세기에서부터 시작하는 문법화의 과정으로 소급되는 것이다(예문 {1}을 참조). 의존명사 '길'에서 수행된 '도로>수단, 방법'으로의 의미변화의 시작은 관용적으로 형성된 통사 구조인 '-(으)ㄹ 길이 없다'의 보문의 용언이 실질명사 '길'(道)을 풀이하는 동작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동작동사 '나가다, 벗어나다' 등에서부터 발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의 자료에서도 이와 같은 통사적 조건에서 '길'은 그대로 자립 명사적 속성을 유지한다.

(6)ㄱ. 픽왕이 심을 다ᄒᆞ여 좌총우돌ᄒᆞ되 버셔날 기리 업난지라(초한,하.29ㄱ),
ㄴ. 문밧기 두 군사 직키거늘 중중한 담장안의 나갈 기리 업셔스니(충열,상.11ㄱ).

위의 예문에 등장하는 '길'의 의미는 일단 구상적인 것(道路)이지만, 추상화(수단, 방법)로의 잠재성도 갖고 있다. 이러한 의미의 애매성에서 위의 예문 (5)에서와 같이, '-(으)ㄹ 길이 없다'의 보문의 용언이 구상적인 '길'과 연관이 없는 '(물에) 빠지다', '입히다', '잡아가다' 등으로 확대되면서 "수단, 방법"으로의 은유화가 촉진된 것이다.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에서도 동일한 통사적 환경에 출현하는 '길'은 근원적인 자립명사와 의존명사가 문법화의 단계에서 언제나 공시적으로 실현되는 적층(layering)의 형식으로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형적인 통사 구조 '-(으)ㄹ 길이 없다'에서 발단된 '길'의 문법화는 현대국어에서 그 통사적 환경을 '--는 길에'(during, while, Ramstedt(1939:121)와 '--는/던 길로'("곧 바로", 허웅 2000:259) 등과 같은 새로운 영역으로 점진적으로 확대시킨 것이다.

2.2 19세기 후기 국어에서 의존명사 '길' 과 '일' 의 경우

2.2.1 왕문용(1988:30, 2003:280)은 근대국어의 의존명사 목록을 검증하면서, 이 시기에 '법'(法)은 여전히 자립명사로 기능을 발휘하였으며, 이 성분의 문법화 과정은 현대국어의 단계에 들어와서 시작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근대국어 단계에서 '법'이 유지하고 있는 자립 명사적 속성이 이주행(1988:54), 류성기(1997:62), 이숙경(2006) 등에서도 관찰되어 왔다. 현대국어에서 의존명사로서 작용하는 '법'이 구성하는 통사적 환경과, 여기서 파생된 의미의 전이는 다양한 편이다.[15]

허웅(2000)은 대부분의 다른 연구자들과는 달리(임동훈 1991, 서정수 1996, 안주호 1988, 등), 현대국어 의존명사의 목록으로 '법' 자체를 취급하지 않았다. 이주행(1988)은 현대국어에서도 이 성분의 의존 명사적 성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 반면, 고영근(1989:75)은 '법'이 나타내는 위의 사전적 용례 가운데, (ㅂ)에 해당되는 통사적 구성 '-(으)ㄹ 법하다'를 주목하였다. 그리하여 이 예에서 해당 명사의 의미가 "추측"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자립명사 '법'과는 거리가 멀다고 간주하였다.[16] 그러나 현대국어에서 확립된 것 같은 '법'의 통사적 제

15)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에 의하면, 현대국어에서 의존명사 '법'의 통사적 구성과 그 의미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나뉜다. (ㄱ) (어미 '-는' 뒤에 쓰여) 방법, 방식: 계산하는 법. (ㄴ) (어미 '-는' 뒤에 쓰여) 해야 할 도리나 정해진 이치: 여자라고 해서 남자에게 지라는 법이 있나요? (ㄷ) (어미 '-는' 뒤에 쓰여 행동하는 습성의 예를 이르는 말: 재가 언제 한번이라도 돈을 내는 법이 있니? (ㄹ) '-은/는 법이다' 구성으로 쓰여) 앞 말의 동작이나 상태가 당연함을 나타내는 말: 달도 차면 기우는 법이다. (ㅂ) (어미 '-을' 뒤에 쓰여) 어떤 일이 그럴 것 같다는 뜻: 일은 잘 될 법하다.

16) 서정수(1996:475-476)는 현대국어 의존명사의 기원에 따라서 "전용된 의존명사" 항목을 설정하고, 여기에 '바람, 수, 턱' 및 '법'을 포함하였다. 전용된 의존명사는 "본디 자립명사이었던 것들이 환경에 따라 의존적 쓰

www.kci.go.kr

한과, 여기서 은유의 과정을 거쳐서 파생된 “관례” 또는 “관습” 그리고 “습관적인 사실”과 같은 방향으로의 의미의 전이는 부분적으로 근대국어의 마지막 단계인 19세기로 소급될 수 있다.

(7)ㄱ. ᄉᆞᄅᆞᆷ니 쥬그면 ᄒᆞᆫ번 죽제 두 번 죽ᄂᆞᆫ 법 업ᄂᆞ니(박순호본 99장본 춘향가, 52ㄱ),
ㄴ. 셰ᄉᆞᆼ의 사람덜도 츙신 의리 아ᄂᆞᆫ 이ᄂᆞᆫ 즙아먹ᄂᆞᆫ 볍이 업고(완판 퇴별가,5ㄱ),
ㄷ. 어려서 ᄒᆞᆫ 도인을 만ᄂᆞ 상보ᄂᆞᆫ 법을 ᄇᆡ은 바(완판 길동, 4ㄴ),
도련님이 글ᄂᆡ 상 보는 볍이 도져ᄒᆞ오(박순호본 99장본 춘향가, 10ㄴ).[17]
(8)ㄱ. 신션 계신 곳에 인간 범샹ᄒᆞᆫ 사ᄅᆞᆷ은 마고 못 가ᄂᆞᆫ 법이오니(한어문전,E.G. 21:11),
ㄴ. 아모리 싱각ᄒᆞ여도 죽을 밧긔 다른 법이 업ᄉᆞᆫ 즉(상동.E.G. 23:21),
날마다 죠셕 ᄲᅢ가 되면 다른 법으로 봉양ᄒᆞᆯ 수ᄂᆞᆫ 온젼이 업ᄉᆞ니(상동.E.G.18:4),
ㄷ. 냥반이 ᄆᆞᄋᆞᆷ에 심히 무셔오나 별 법이 업서(moyen, 상동.E.G.23:20),
ㄹ. 됴ᄒᆞᆫ 법이 잇다(moyen, 한어문전.E.G.52),
(9)ㄱ. 엇지 ᄒᆞᆯ 법 업ᄉᆞ나(한어문전.E.G.21:7),
ㄴ. ᄒᆞᆫ 사ᄅᆞᆷ이 포흠 수만금을 져 갑흘 법이 업ᄉᆞ니(상동.E.G.17:1).

19세기 후기 지역방언에서 추출된 이와 같은 ‘법’의 용례들에서 현대국어에서와 같은 특정한 통사적 구성인 ‘-(으)ㄹ 법하다’의 경우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왕문용(2003)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현대국어 이전의 문헌 자료상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필자는 ‘법’이 의존명사의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문법화를 수행하여 가는 과정과 속도가 위의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유형의 통사적인 환경에 따라서 동일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생각한다. 그렇다면, 자립 실질명사 ‘법’(法)이 놓이게 되는 통사적 환경에 따라서, 객관적이고 구상적인 의미로부터 은유화를 거쳐 추상화되어 결국은 의미변화의 최종적인 단계인 화자의 주관적 양태가 강화된 “추측”의 의미를 갖게 되는 ‘-(으)ㄹ 법하다’의 구성이 현대국어에서 최근에 완성되었을 것이다.

또한, 위의 (7)-(9)에서 제시된 19세기 후기 의존명사 ‘법’의 쓰임에서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에서 열거한 현대국어의 용법과는 상이한 의미의 변화와 통사적 구성이 주목된다. 특히, 예문 (8)에서 출현하는 ‘법’과 그 통사적 환경 ‘-(을) 법(이) 있다/없다’와 같은 사례는 현대국어에서 쉽게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구성에서 ‘법’은 “수단”과 “방법”의 의미를 취한다. 아래의 19세기 중엽(1840년 대)의 또 다른 이와 같은 부류의 예들을 보면, 예문 (9)와 같은 통사적 환경 ‘-(을) 법(이) 있다/없다’의 쓰임은 비단 19세기 후기 중부방언과 전라방언 자료에서만 한정되어 출현하는 현상이 아니었다.

(10)ㄱ. 中品으로 잡으려 ᄒᆞᄋᆞᆸ시면 혹 端으로나 ᄀᆞᆯᄒᆞ여 약간 잡으실 법 잇습거니와(아스톤본 인어대방 1.17ㄴ),

---

임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공시적으로 이들 성분은 통사적 환경에 따라서 자립성과 의존성의 양면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존명사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자립명사의 문법화와 그 맥을 같이한다고 생각한다. 공시적으로 의미와 출현하는 통사 구조에 있어서 일정한 자립명사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보이는 의존명사가 존재한다면, 그 성분은 의존명사화의 전개 과정에서 역사적 어느 단계에서 먼저 전용 의존명사의 신분을 필수적으로 통과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17) 현대국어에서 ‘법’의 의존명사 기능을 나타내는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에서의 규정 가운데 “(ㄱ) (어미 ‘-는’ 뒤에 쓰여) 방법, 방식: 계산하는 법”과 같은 용례는 원래 이 명사의 다의적 성격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통사적 환경은 17세기 국어에서도 통상적으로 출현하였다.
됴ᄒᆞᆫ ᄆᆞᆯ 샹 보는 법이라(마경언해,상.3ㄱ), 산도 브틸 법이라(태산집요언해 63ㄴ).

www.kci.go.kr

ㄴ. ᄉᆞᄉᆞ로이 議論하면 혹 될 법이 잇ᄉᆞ오려니와(상동.2.18ㄱ),
ㄷ. 그 ᄉᆞ이 乘菊ᄒᆞ여 알외여 보면 혹 回心ᄒᆞ실 법이 잇ᄉᆞ오리(상동.5.13ㄴ).

위의 예문에 등장하는 '법'은 일본어 대역에서 "방법"의 의미로 추상화된 '길'(michi)로 대응되어 있다. 또한, 『한불ᄌᆞ뎐』(1880)의 표제어 '법' 항목에서 미래 관형사형 어미 다음에 통합되는 '법'은 moyen(수단, 방법)을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예문이 첨가되었다. ᄒᆞᆯ 법 잇다: il y a moyen de faire, on peut faire; ᄒᆞᆯ 법 업다: il n'y a pas moyen de faire, on ne peut pas faire.(p.316).

이러한 용례들은 20세기 국어에 들어와서도 Ramstedt(1939:120)에서 관찰된 바 있다. Ramstedt(1939)에 의하면, 의존명사 '법'(法)은 선행 성분으로 미래 관형사형, 후행성분으로 존재동사 '있다/없다'의 통사적 구성으로 빈번하게 쓰인다. 이러한 통시적 환경에 등장하는 '법'의 의미는 can/can't에 해당되기 때문에(예: 약을 많이 먹을 법이 없소. 들어 올 법 없소. 약이 있더면 이 병을 고칠 법이 있소), 대부분의 경우에 또 다른 의존명사 '수'(가능성)와 동일한 기능으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참고해 보면, 19세기 후기 국어에서 문법화의 과정을 수행한 '-(을) 법(이) 있다/없다'의 통사적 구성과, 의존명사 '법'이 표출하고 있는 관습화된 문맥적 의미 "수단", "방법"은 현대국어에서 그 영역이 대폭 축소되어 버렸거나, 어떤 이유로 소멸의 길을 걸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단순한 의존명사 성분 자체의 개체적 소멸이 아니라, 해당 성분의 여러 의존 명사적 환경과 변화된 추상적 의미 가운데, 어느 일부가 의존명사로서의 기능이 다음 시대에서 화자들에 의해서 사용하지 않게 되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다.

중세와 현대국어에 이르는 역사적 관점에서 의존명사의 신생과 소멸의 원리를 규명하려고 시도한 왕문용(2003)은 그것의 새로운 형성은 의미 체계적 빈칸의 원리에서, 기존의 소멸은 의미체계에서 과도한 의미의 중첩, 또는 기능상의 중첩에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을 전제로 하면, 위의 예문 (8)의 경우에 의존명사 '법'의 통시적 환경과, §2.1에서 살펴 본 의존명사 '길'이 취하고 있는 '-(으)ㄹ 길이 없다/있다'에서 문법화가 이루어진 추상적인 의미가 서로 중복되거나 일치되는 영역이 확인된다. 우리는 위에서『한불ᄌᆞ뎐』(1880)의 표제어 '길'과 '법'에서 동일한 통사적 환경 "ᄒᆞᆯ 길이 잇다/업다"와 "ᄒᆞᆯ 법 잇다/업다"에 사용된 이 성분들의 의미가 각각 moyen(수단, 방법)으로 대응되어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물론 이와 같은 통사적 구성 '-(으)ㄹ 길/법이 없다/있다'에서 언제나 의존명사 '길'과 '법'의 의미가 중복되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위의 예들 가운데 『한어문전』(1881)에서 인용된 (8)의 예문에서 의존명사 '법'을 '길'로 대치하여도 추상적인 "수단" 또는 "방법"의 의미에 손상이 있을 것 같지 않다.

(11)ㄱ. 엇지 ᄒᆞᆯ 법/길 업ᄉᆞ나(한어문전.E.G. 21:7),
ㄴ. ᄒᆞᆫ 사ᄅᆞᆷ이 포흠 수만금을 져 갑흘 법/길이 업ᄉᆞ니(상동.E.G. 17:1).

2.2.2 19세기 후기와 20세기 초반의 국어에서 의존명사 '길'과 '법'이 이루고 있는 통사적 구성 '-(으)ㄹ 길/법이 없다/있다'에서 의미 중복 현상은 또 다른 유사 의존 명사적 기능을 하는 '일'(事)의 통사적 구성 'ᄒᆞᆯ 일 없다'의 통합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국어에서 명사 '일'(事)의 용법은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에 따르면, 맥락에 다른 다의적 성격을 보이는 13가지 유형을 보인다. 이러한 '일'의 용례 가운데 관용적으로 굳어

www.kci.go.kr

진 통사적 환경은 사전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ㄱ) (동사의 관형사형 뒤에 쓰여) 그 동사의 행위를 이루는 동작이나 상태를 이르는 말: 그는 한번도 화를 낸 일이 없다.). (ㄴ) ('-ㄹ/을 일로/일이다'의 구성으로 쓰여) 마땅히 그렇게 하여야 함을 이르는 말: 어른이 부르면 빨리 대답할 일이다.). 일찍이 Ramstedt(1939:116)는 '일'의 일반적인 다른 용례들은 제외하지만, 특히 (ㄴ)의 '-ㄹ/을 일이다'와 같은 통사 환경에 쓰이는 '일'을 일종의 의존명사(special postparticipial noun)로 설정하고, 그 의미가 "must, should, ought to"로 전이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예: 갈 일이오, 노형이 편지를 쓸 일이오.). 고영근(1989:73)은 자립명사 '일'이 이와 같이 특정한 통합 관계를 갖게 되면 의미의 변화가 수반되기 때문에 의존명사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순차적 검증 과정에서 57개에 이르는 의존명사의 최종적인 목록에서 '일'의 경우는 제외되었다(이주행 1988:70도 참고).

그러나 특정한 통합 관계에 따른 '일'의 의존 명사적 성격과 관련하여 필자는 19세기 후기 국어 자료에 등장하는 다음과 같은 '--할+ 일+ 없다' 통사 구성을 주목한다.[18]

(12)ㄱ. 집안을 뒤즙으니 놀보 할 일 읍셔 분 씸의 쏘 한 통을 탈랴고
(김문기 소장, 26장본 흥보전, 2ㄱ),
ㄴ. 놀뵈 할 일 읍셔 타고 보니(상동.25ㄴ),
ㄷ. 죽어스면 할 일 업거니와 사라스면 만날 날이(완판,심청,하.20ㄴ),
ㄹ. 용이 물을 이려쓰니 이제는 할 일 업다(충열,상.32ㄴ).
(13)ㄱ. 도젹의 빅 션창으로 달여드니 부인이 ᄒᆞ릴 업셔 통곡ᄒᆞ며(충열,상.18ㄱ),
ㄴ. 진퇴유곡이라. ᄒᆞ릴 업셔 물가의 차자 가니(충열,상.16ㄱ),
ㄷ. 츙열이 하릴 업셔 강승상을 ᄯᆞ라 가니(충열,상.22ㄴ),
ㄹ. 눈 어둡고 귀가 머거 볼 수 업고 들를 수 업셔 하릴 업난 일이로셰(수절가,하.26ㄴ),
(14)ㄱ. 손님이 그예이 알냐 ᄒᆞ시니 말ᄒᆞᆯ 밧긔 ᄒᆞᆯ 일 업소(한어문전 18:4),
ㄴ. ᄒᆞᆫ 가난ᄒᆞᆫ 냥반이 잇서 형셰 ᄒᆞᆯ 일 업스니(상동.22:15),
ㄷ. 간린ᄒᆞᆫ ᄆᆞᄋᆞᆷ에 ᄆᆡ우 어려오나 톄면에 할 일 업서 음식을 쟉만ᄒᆞ고(상동.45).

위와 같은 특정한 통사적 구조는 '일'의 선행 성분으로 대용동사 '하-'(爲)의 미래 관형사형만을 요구하는 제약을 보인다. 여기서 의존 명사적 기능으로 전환된 '일'의 의미는 역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추상화되었다. 따라서 (12)-(14)의 예문들은 그 통사적 환경과 의미변화에 있어서 우리가 앞서 논의한 바 있는 의존명사 '길'과 '법'의 용법과 어느 정도 접근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12)-(14)에 등장하는 '일'의 경우는 우리가 §3.1에서 취급할 의존명사 '수'의 쓰임과 통사적 기능과 파생된 의미가 완전하게 일치한다. 따라서 '할 일 없다'와 같은 통사적 환경과 문법화를 수행한 의미가 동 시대에 여타의 다른 의존명사 '수, 길, 법' 등과의 대부분 중복되었다는 사실이 19세기 후기 국어에서 이 성분을 점진적으로 현대국어의 '하릴없-'과 같은 어휘화(lexicalization, Brinton & Traugott 2005)의 방향으로 이끌게 되었던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19]

자립명사 '일'(事)이 '할 일 없다'와 같은 특정한 통사 구조에서 의미 화용론적 변화를 수행하여 문법화의 과정에 진입하게 되는 역사적 시기는 한글 서간 등과 같은 비격식체

18) 그러나 '일'이 사용되는 화용론적 상황에 따라서 'ᄒᆞᆯ 일 없-'과 같은 통사적 구성이 문법화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는 예들도 있다. "공연히 남의 집에 와셔 ᄒᆞᆯ 일 업시 먹고 잇ᄂᆞᆫ 사ᄅᆞᆷ들이"(독립신문 1896.12.8).

19) 현대국어에서 통시적 구성을 이루던 것이 융합이 진전되어 새로운 어휘적 의미를 가진 형태적 구조로 결과된 어휘화의 예들은 안주호(2001:101-102)를 참조.

www.kci.go.kr

(casual style)의 예를 관찰하면 16세기 국어로 소급될 수 있다.[20] 내 히므로ᄂᆞᆫ 홀 이리 업세라(청주언간, 123).[21] 그러나 위의 19세기 후기 국어의 예들 가운데 특히 (13)의 용례들은 동사구를 형성하는 통사적 구성의 내부가 단어의 경계가 제거되어 부분적으로 융합(fusion)되어 가는 경향을 반영한다. 즉, '홀#일#없-→ᄒᆞ릴#없-'. 또한, (13)의 예들은 뒤이어 수행된 'ᄒᆞ릴#없-→ᄒᆞ릴없-'과 같은 단계도 아울러 나타내었을 가능성도 있다. 『한불ᄌᆞ뎐』(1880:87)에는 이미 재분석을 거친 '홀일업시'(無可奈何, certainement, nécessairement; il n'y pas de resource, il n'y a pas moyen de faire autrement)형이 하나의 단어 항목으로 등록되어 있다.[22]

3. 의존명사 체계에서의 유기적 관계와 역사 연속성

3.1 19세기 후기 국어에서 '수'(數/手)의 문법화와 기능의 확대

현대국어에서 '수'는 가장 원형적인 의존명사 목록에 포함되어 있어(최형용 1997:15),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문법형태소로서 그 의존 명사적 속성을 의심하지 않는다. 물론 '수'는 오늘날 매우 제한되어 있으나 자립명사로도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현대국어에서 '수'가 나타내는 이와 같은 양면성을 서정수(1996:475)는 '바람', '턱' 등과 같은 부류들과 같은 전용된 의존명사로 규정한 바 있다. 그렇다면 자립명사로서의 '수'는 어느 역사적 단계에서부터 문법화의 과정을 수행하여 현대국어에서 의존명사의 신분으로 확립되어 사용되는 것일까.

근대국어 단계의 의존명사화 과정을 고찰한 이주행(1987, 1988)과 왕문용(1988)은 18.9세기에 실현된 '수'의 쓰임에서 "관형어의 선행을 필수 조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의존명사 목록에서 제외하였다.[23] 그 반면에, 왕문용(1988:189-190)은 19세기 국어에서 '바람'의

---

20) '일'(事)의 문자적 의미에서 이와 같은 특정한 통사적 환경에서 일어나는 초기의 화용론적 추론은 해석자들에게 한 가지 이상의 해석이 실제로 가능할 때(즉, 중의적인 상황) 일어난다. 그러나 원래의 문자적인 의미가 은유를 거쳐 확대된 이차적 의미가 맺고 있는 연관성이 다음 세대의 화자들에 의해서 불투명하게 된다면 일종의 의미의 재분석이 이루어진 것이다(Traugott & Dasher 2002). 어느 화자가 어떤 상황에서 대처할만한 '일'이 제거된다는 순수한 외적 의미는 화자가 그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는 화자의 인식이 강하게 가미된 내적 평가 의미로 전환되어 의미 화용론적 변화의 제 3단계인 주관화(subjectification)가 수행된 것이다.

21) <청주언간>의 자료와 해독은 조항범(『주해 순천김씨 묘 출토간찰』(1998, 태학사)을 이용하였다.

22) 그리하여 20세기 초엽 <신소설> 부류에 반영된 국어에는 아래의 예들에서 관찰되는 바와 같이, 하나의 단어로 어휘화된 용례들만 쓰이고 있다(예문 검색에는 황용주(전북대) 선생이 구축한 신소설 말뭉치와 SynKDP 1.55를 이용하였다.).
1) 가자실 제 갓더면 이 고싱은 안이 힛지 하릴업시 인제 와셔 가고(1908, 송뢰금,85),
2) 우리 갓흔 못ᄂᆞᆫ 것은 하릴업시 이런 천ᄒᆞᆫ 일을(1912, 재봉춘,6),
3) 혼자 말로 계집이란 거슨 하릴업ᄂᆞᆫ 거시야(1907, 귀의성上,7),
4) 도젹놈 이라ᄂᆞᆫ 거슨 하릴업ᄂᆞᆫ 놈이로구(1908, 귀의성.하,104),
5) 셜영 못 맛ᄂᆞ보더릭도 하릴업고 졍이가 어ᄃᆡ 가서 쥭엇슬지라도(1914, 안의성,121),
6) ᄌᆞ식된 도리에 그리도 허깃다마는 부모된 마음에 쥭으면 하릴업지마는(1913, 셰검뎡,47).

23) 이주행(1987)은 근대국어 자료에서 설정된 잠정적인 의존명사 목록 가운데 "수(슈)" 항목을 첨가한 다음, 주로 완판 84장본 『춘향젼』에서 추출된 예들을 제시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관형어의 선행을 필수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상의 예에서 쓰인 '수(슈)'는 모두 '도리'나 '방안'을 의미한다. 예들 가운데, "-될 박 그 수 업다. -갈 박그 슈가 업네." 등에서 쓰이는 바와 같이 '수(슈)'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지 않고 자립적으로 쓰이기도 한다. 따라서 '수(슈)'는 자립명사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다."(208-209쪽)
왕문용(1988)도 후기 근대국어 시기에 의존명사의 체계 내에 들어 온 의존명사를 검토(ㄱ. 한자차용으로 형성된 의존명사: 뉴, 번, 중, 지경, 차, 체, ㄴ. 의미변화로 형성된 의존명사: 김, 노릇, 동안, 바람, 양, 쪽, ᄌᆞ

www.kci.go.kr

경우는 그 당시 보이는 통합 관계의 제약(--는 바람에)과, 추상화된 의미의 변화(風>여세, 원인)의 관점에서 이미 의존명사의 신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왕문용(1988)에서는 근대국어 단계의 의존명사 목록을 작성하는 기준에 있어서 일종의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생각한다.[24] 즉 이 시기에 '바람'의 제한적 쓰임에서는(비록 생산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일종의 전용된 의존 명사적 성격을 인정하지만, '수'의 사례에서는 현대국어에서와 거의 동일한 통사적 제약의 분포(-(으)ㄹ 수 없다/있다)와, 여기에 부과된 추상화된 의미변화(數, 手> 가능성, 수단, 방법)에도 불구하고 그 의존 명사적 속성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19세기 후기 전라방언 자료에서도 '바람'의 통사적 제약이 출현하기 시작하였으나, 문법화의 초기 단계로 의미의 전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의성이 다음과 같은 예에서 어느 정도 감지된다. 기러기 또 날기의 모릭을 무쳐다가 불의 면상의 뿌린이 날기 치는 바람의 두 눈에 모시가 드러가니(적성의젼 하,28ㄱ). 따라서 '-는 바람에'에서 수행된 의미의 변화는 먼저 "바람과 더불어 일어나는 구상적인 기세"에서, 다양한 보문의 맥락으로 확대됨에 따라서(허웅 2000:256) 일반화되어 구상적인 '바람'의 성분이 제거되어 은유화(metaphorization)를 거친 이차적 의미인 "여세, 원인" 등으로 옮겨 간 것이다.

19세기 후기 전라방언 자료에서 '수'의 쓰임은 자립명사와 의존명사의 두 영역에 걸쳐 나타난다. 이러한 사용 예에서 특정한 지역 방언적 특질은 관찰되지 않는다. 특히 완판 84장본『열여춘향수절가』를 이용하여 이 성분의 전형적인 쓰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5)ㄱ. 노상으셔 울 수 업셔(수절가,상.36ㄴ),
ㄴ. 큰딕으로 가셔 살 수 업슬 거시니(상.37ㄱ),
ㄷ. 달이는 변통할 수 업고(상.41ㄱ),
ㄹ. 엇졀 수가 업네(하.12ㄱ), 춘향이 할 수 업셔(하.8ㄴ),
ㅁ. 눈 어둡고 귀가 머거 볼 수 업고 들를 수 업셔 하릴 업난 일이로셰(하.26ㄴ),
ㅂ. 목셕 안이여든 감심 안이 될 수 잇냐(하.7ㄴ),
ㅅ. 양반이 부르시난듸 안이 갈 슈 잇것난야(상.11ㄴ),
ㅇ. 이 모다 닉 사랑 갓틱면 사랑 걸여 살 슈 잇나(상.30ㄱ).
(16)ㄱ. 이번는 아마도 이별할 박그 슈가 없네(수절가,상.41ㄴ),
ㄴ. 춘향은 요요의다 틱와 갈 박그 슈가 업네(상.41ㄴ),
ㄷ. 불가불 이벼리될 박그 수가 업다(상.37ㄴ),
ㄹ. 이무 불너쓰니 아미도 혼사할 박기 수가 업소(하.9ㄱ).

위의 예문 (16)에서 '수'의 통사적 환경 '-(으)ㄹ 수 없다/있다'는 현대국어의 용례에 매우 근접하여 있다(고영근 1989). 따라서 이와 같은 조건을 구성하고 있는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에서의 '수'를 자립명사의 신분으로 파악하여야 할 근거가 없다. 예문 (15)에 등장하는 '수'의 문법적 의미는 선행문의 의미 자질과 쓰이는 맥락에 따라 현대국어에서와 동일하

음, 터, ㄷ. 파생법으로 형성된 의존명사: 대, 마곰) 하면서 '수'(數, 術)의 경우는 현대국어에서는 의존적으로 사용되지만 근대국어에서는 의존명사가 아니었다고 기술하였다. 즉, "이 어휘는 중국어, 곧 한자에서 차용되어 시대적인, 사회적인 배경에 뒷받침을 받아 널리 사용되다가 위축의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때에 어떤 일부의 구조에서는 그대로 유지되어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가 의존적인 환경이면 의존명사가 된다. '리, 수'가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어휘이다."(52쪽)

24) 그러나 이주행(1988)에서는 형식명사 설정의 기준(ㄱ. 자립성 여부, ㄴ. 관형어의 필수적인 선행 여부, ㄷ. 수사와의 공기 여부, ㄹ. 대체요소 여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근대국어 단계의 '바람'은 자립명사이었고, 현대국어에서 의존명사로 바뀐 것으로 간주하였다.

www.kci.go.kr

게 다양한 영역(방법, 능력, 힘, 수단 등등)에 걸쳐 있다(이주행 1983, 윤용선 1989, 이병모 1995).[25] 그리하여 『한불ᄌᆞ뎐』(1880:436)에는 표제어 '수'(數, moyen, expedient)의 용법이 자립명사로는 존재하지 않고, 오직 미래 관형사형 다음에 위치하는 환경에 한정되어 있다. 즉, ᄒᆞᆯ 수 잇다(il y a moyen de faire), ᄒᆞᆯ 수 업다(il n'y a pas moyen de faire).[26]

예문 (16)에서 '-(으)ㄹ 박긔 수가 없다'와 같은 통사적 환경에 등장하는 '수'(數/手)는 자립명사로 쓰였음을 보인다(왕문용 2003:280). 이와 같은 관용적인 구성이 다른 유형의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에서와, 여타의 19세기 후기 국어 자료에서 어느 정도 보편화되어 있었음을 아래의 예에서 관찰할 수 있다.

(17)ㄱ. 당신게 가셔 ᄀᆞᆫ쳥헐 밧게는 슈(手) 업ᄉᆞ오니(1882년 正訂 인어대방 1.6ㄴ),[27]
견ᄃᆡ여 볼 밧게 슈(手) 업거든(1904년간, 교정 교린수지 276),
cf. 견듸여 볼 박쎄 업거든(1883년간 재간 교린수지 4.21ㄴ),
ㄴ. ᄯᅩ 삼년 기ᄃᆞ릴 밧긔 수 업고(한어문전, 21:7),
cf. 징검돌도 업서 쒸여 건널 수밧긔 업셔(한어문전.E.G. 39),
밧긔 누셜치 말나 하엿더니 ᄌᆞ연이 밧긔 젼ᄒᆞ야(한어문전.E.G. 21:14),
ㄷ. 소식조차 돈졀ᄒᆞ고 죵적이 끈쳐쓰니 죽을 박기 ᄒᆞᆯ 수 업네(병오,춘.19ㄴ),
네고 ᄂᆡ고 쥭ᄂᆞᆫ 슈박씌 할 일 업다(김문기 소장 필사본 26장본 흥보전 25ㄴ),
오날날은 읍ᄂᆡ을 잠간 드러갈 슈박기난 슈가 업네(상동 8ㄱ),
ᄂᆡ 쇤슈 작정ᄒᆞᆯ 박기 슈가 업네(상동.10ㄴ),
톡기 간을 못 먹으면 쥭을 밧기 슈 업신이(완판 퇴가 3ㄱ),
당신이 무루신이 할 박계 슈ᄀᆞ 업소(상동.15ㄱ),
톡기가 드러본직 두 슈 업시 쥭어구ᄂᆞ(상동.16ㄱ),[28]
ᄇᆡ 속의 간니 업단 말 암만히도 헛말이니 ᄇᆡ 갈으고 보ᄂᆞᆫ 슈ᄃᆞ(상동.17ㄴ),
쇽 뒤집난 비린 ᄂᆡ가 파지평 웃슈로다(윗數/윗手, 판,퇴.256),

위의 예에서 '밧긔' 형태는 이 시기에 쓰이는 통사적 환경에 따라서 공시적으로 자립명사(밖+처격조사 -의)에서 의존명사의 단계를 거치고, 이어서 보조사의 범주에까지 확대되어 있는 모습을 보인다. 문법화의 관점에서 명사구성의 조사화를 역사적으로 고찰한 한용운(2003:90-94)은 15세기에 이미 '밖'(外)은 자립명사에서 의미 분화를 일으켜 의존명사 '밖'과 공존하게 되었으며, 다시 의존명사 '밖'에 처격조사 '의'가 통합된 '밧긔'형이 19세기 무렵에

---

25) '수'의 이러한 용례는 19세기 후기 국어에서 일반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독립신문』(1896-1898)에서는 '수/슈'의 쓰임이 주로 '-(으)ㄹ 수/슈 없다/있다'의 통시적 구성으로만 등장한다. 이 가운데 특히 '-(으)ㄹ 수/슈 없다'의 환경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420여 출현 예를 확인할 수 있다. 그 반면에, '-(으)ㄹ 수/슈 있다'의 사례는 이 자료에서 6회 정도로 등장하였다(황용주(전북대) 선생이 입력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독립신문』에서 추출된 예 가운데 의존명사 '수' 다음에 통합되는 조사와의 측면에서 세 가지 유형만 제시한다.
ㄱ. 안ᄒᆞᆫ 일을 미리보고 ᄒᆞ엿ᄂᆞᆫ지 알 수 업더라(독립1896.6.20.②),
ㄴ. 이 ᄉᆞ긔ᄂᆞᆫ ᄊᆡ트릴 수가 업게 ᄆᆞᆫ드럿다더라(독립1897.1.23②),
ㄷ. 쳥국셔 불란셔를 토디로 허급 ᄒᆞᆯ 수ᄂᆞᆫ 업다고 ᄒᆞ엿다더라(독립1898.3.29).

26) Gale의 『한영ᄌᆞ뎐』(1897:609)에는 표제어로 '수나다'(to obtain means, to get possession of money)가 등록되어 있다.

27) 19세기 후반 일본에서 필사되거나 간행된 한국어 학습 자료에는 위의 예문 (18)ㄱ에 해당되는 일본어 대역 부분에 한국어의 '수'에 대해서 한자어 '手'로 대응되어 있다.

28) 완판본 자료에 등장하는 '두 수 업시-'와 같은 구성은 신소설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경찰이 지독ᄒᆞ게 엄히셔 두 수 업시 쏙 죽을 판인ᄃᆡ"(1911년 화세계, 132).

www.kci.go.kr

재분석되면서 조사화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역시 19세기 국어의 문법사적 고찰을 시도한 이현희(1994:60)는 위의 예문에서와 같은 통사적 구성 '-(으)ㄹ 밧긔 수(가) 없다' 유형을 흥미롭게 관찰한 바 있다. (17)ㄷ에서 "오날날은 읍닉을 잠간 드러갈 슈박기는 슈가 업네" 같은 구성에서는 동일한 성분 '수'가 의존명사와 자립명사의 신분으로 번갈아 등장하고 있다.

또한, (17)ㄷ의 예문 가운데 '--박기 할 수 없다'와 같은 구성에서 '수'는 다른 의존명사 '일'과 교체될 수 있음을 보인다.[29] 필자는 앞서 §2.에서 의존명사 '길'(예문 {4}-{6})과 '법'(예문 {9}), 그리고 '일'(예문 {12}-{14}이 '-(으)ㄹ 길/법/일 없다/있다'와 같은 특정한 통사적 환경에서 원래의 자립명사로부터 의미가 분화되어 "수단, 방법" 등의 추상적인 뜻으로 발달하였다는 사실을 관찰하였다. 따라서 고유한 문법화 과정을 거쳐 이 환경에 동참하게 되는 세 가지 유형의 의존명사 '길/법/일'의 이차적인 의미들이 근대국어 어느 시점의 의미 체계에서 어느 정도 일치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하여 필자는 이러한 상황이 특정한 통사적 구성에서 현대국어에서 의존명사 '법'의 지속적인 쓰임을 축소시켰으며, 동시에 '일'의 구성을 어휘화하게 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이해하였다.

필자는 '-(으)ㄹ 길/법/일 없다/있다'의 통사적 환경에 등장하는 의존명사 '길/법/일'의 사용 영역의 축소는 상대적으로 이와 동일한 통사 구성에서 중복되는 의미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 또 다른 의존명사 '수'의 기능 확대에 반비례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 시기는 근대국어의 후반기 정도에 해당될 것으로 본다. 19세기 중기와 후기 단계에 이르면 '-(으)ㄹ 수 없다/있다'의 구성에 등장하는 '수'의 출현 빈도가 '길/법/일'의 경우보다 훨씬 더 높게 확인되기 때문이다.

국어사의 단계에서 의존명사 '수'의 문헌 자료상의 출현은 근대국어의 후반기로 한정된다. 따라서 중세국어에서 '수'는 의존명사 후보목록에서도 취급될 수 없다(고영근 1995). 그렇다면 중세국어의 단계에서는 오늘날과 같은 "방법/수단"을 표현하는 '관형사형+의존명사+존재동사(있/없-)'의 통사적 구성이 존재하지 않았을까? 이 시기에도 이러한 통사적 장치의 표현 수단이 가능하였다면, 이와 같은 구성은 어떻게 표현하였을까? 필자는 이러한 의문들에 대한 어떠한 대안도 확실하게 제시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다(앞으로 논의될 §3.2를 참조).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앞선 §2에서 취급한 '길/법/일' 등이 왕문용(2003)에서 진술된 바와 같은 의미 체계상의 빈칸을 의존명사 '수'가 확대되기 이전 단계에 보충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동시에 새로운 '수'의 경우는 이미 중세국어의 단계에서부터 쓰이는 통사적 환경에 따라서 의존명사화로 향할 수 있는 잠재성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다음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버ᅀᅵ 셤길 사ᄅᆞᄆᆞᆫ 병 고튤 슈ᄅᆞᆯ 아디 몯 호미 올티 아니ᄒᆞ니라(事親者ᄂᆞᆫ 亦不可不 知醫니라, 번역 소학 7:5ㄴ).[30]

3.2 의존명사 '셰'(勢)의 형성과 소멸의 과정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에서 통상적으로 의존명사 '수'가 나타나는 '-(으)ㄹ 수 없-'의 통

29) 이현희(1994)는 주로 『정정 인어대방』(1882)에서 추출된 자료를 이용하여 이러한 구성에 의존명사 '수' 대신에 '길'도 나타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였다. 시작헐 박께는 헐 ᄭᅳᆯ 업ᄉᆞ오(정정 인어대방 2.12),

30)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에 '슈'의 표제어로 이 예문이 제시되어 있다. 이 사전에서 이와 같은 통사적 환경에서 쓰인 '슈'는 "수, 방법"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의존명사로 규정하였다. 『번역소학』 7권에 등장하는 이 구절은 선조판 『소학언해』(1589)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해되어 있다. 어버이 셤기ᄂᆞᆫ 이 ᄯᅩ 可히 의슐을 아디 아니티 몯ᄒᆞᆯ거시니라(5권 39ㄱ).

www.kci.go.kr

사적 환경에 다음과 같은 새로운 문법형태 ‘셰’형이 일종의 수의적 변이형과 같은 형태로 쓰이고 있음이 주목된다.

(18)ㄱ. 츈향 홀 셰 업셔 수절가ᄒᆞ던 그 ᄐᆡ도로(33장본.병오.춘.15ㄴ)[31],
츈향이 할 셰 업셔 슈졀ᄒᆞ던 그 ᄐᆡ도로(29장본.완판. 별춘.14ㄴ).
cf. 츈향이 할 일 업셔 슈졀ᄒᆞ던 그 ᄐᆡ도로(필사 성열.198),
춘향이 할 수 업셔 수절하던 그 ᄐᆡ도로(수절가,하.8ㄴ).
ㄴ. 츈향이 ᄃᆡ답치 안이ᄒᆞ고 홀 셰 업셔 집으로 도라와셔(필사 성열.196)
cf. 츈향이 ᄃᆡ답지 안이ᄒᆞ고 할 수 업셔 집의 도라와(33장본.병오,춘.13ㄱ).
ㄷ. 일ᄃᆡ 할 셰 업셔 회군ᄒᆞ여(완판.조웅 3.3ㄴ),
일ᄃᆡ 홀 셰 업셔(완판.조웅 3.14ㄴ),
황졔 홀 셰 업셔(완판.정사본,조웅 3.33ㄱ).
cf. 황졔 홀 수 업셔(완판.조웅 3.18ㄱ),
문을 구지 다덧는지라 홀 셰 업셔 그져 도라셔며(완판.정사본.조웅 1.7ㄱ).

위의 예에서 ‘셰’는 당시의 완판본 고소설 자료에서도 적극적으로 출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생산성은 의존명사 ‘수’에 비하여 훨씬 떨어진다. (18)ㄱ의 예들은 춘향전 이본들의 유형에 따라서 동일한 통사 구성에서 ‘셰’와 ‘일’ 그리고 ‘수’가 임의로 교체되어 쓰일 수 있음을 보인다. 또한, (18)ㄴ의 예에서는 ‘셰’형을 반영하였던 33장본 완판 『병오본 춘향전』 자체에서도 상황 또는 문맥에 따라서 역시 ‘수’로 대치되는 과정을 나타낸다. 제한된 통사적 환경에서 이와 같이 ‘셰’와 의존명사 ‘수’와 자유롭게 교체되어 사용된다는 사실은 두 문법 형태소의 기능과 의미가 어느 정도 일치되어 있음을 추정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셰’의 의미는 “수단, 방법”에 접근하여 있을 것이 분명하다. 19세기 후기 전라방언 자료에 의존명사 ‘수’를 대신하여 간헐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셰’는 형태 어휘론적으로 어디에서 형성되어 나온 것일까.[32]

이러한 의문과 관련하여, 한국어 학습서로 18세기 후엽에 간행된『隣語大方』(1790)과 19세기 중엽에 일본에서 필사된 아스톤본『隣語大方』(1841), 그리고 그 이후 일본 외무성 장판『正訂 인어대방』(1882) 가운데 ‘-(으)ㄹ 셰 없-’과 같은 구성을 갖고 있는 동일한 예문에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ㄱ. 人馬ᄅᆞᆯ 출여 ᄂᆞ려오쟈 홀 ᄎᆞ의 風雨가 暴至ᄒᆞ오매 들어 올 셰 업ᄉᆞ와 不得已 失約을 ᄒᆞ엿ᄉᆞ오니 애ᄃᆞᆯ니 너기ᄋᆞᆸᄂᆡ(1790년, 인어대방 3.15ㄴ),
ㄴ. 人馬를 출혀 막 나려오쟈 홀 ᄎᆞ에 風雨가 暴至ᄒᆞ여 드러올 셰 업ᄉᆞ와(1841년, 아스톤본 인어대방 필사본 4.11ㄴ; 경도대본 인어대방 2.6ㄴ),
ㄷ. 막 나려오쟈 홀 ᄎᆞ(次)에 풍우가 폭지ᄒᆞ야 드러올 셰(勢) 업ᄉᆞ와 부득이 실약이 되엿ᄉᆞ오니(1882년, 정정 인어대방 7. 6ㄱ).
(20)ㄱ. ᄆᆞᆯ이 失足ᄒᆞ여 落傷을 대단히 ᄒᆞ여 나갈 셰 업기의 내가 代行 ᄒᆞ게 ᄒᆞ엿ᄂᆡ(아스톤본

31) 설성경 교수는 그의 주석서『춘향전』(완판 33장본, 1986: 83, 시인사)에서 위의 부분을 “춘향 할 수 없어...”로 풀이하였다.

32) 이현희(1994:60)는19세기 국어의 문법사를 조감하는 자리에서, ‘셰’(세), ‘슈/수’(手) 등이 이 시기에 새로이 등장하기 시작한 의존명사 부류임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의존명사라는 ‘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과 문헌상의 예문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정재영(1996)의 다음과 같은 기술도 아울러 참고. “--19세기 후반부터 쓰이기 시작한 ‘셰’(勢), ‘슈, 수’(手) 등도 쓰이기 시작하여 의존명사 구문이 더욱 풍부해졌다.”(19-20쪽).

www.kci.go.kr

5.16ㄱ; 경도대본 필사본 인어대방 3.9ㄱ).

ㄴ. 낙샹을 대단히 ᄒᆞ야 나갈 슈(手) 업기에 ᄂᆡ가 ᄃᆡ힝허게 허엿슴네다(1882년 간본 인어대방 8.8ㄱ).

예문 (19)ㄴ에서 '드러 올 셰 업ᄉᆞ와' 통사 구성에 등장하는 '셰'에 대한 일본어 대역어는 "기세" 또는 "힘"에 해당되는 'ぃきおぃ'로 대응되어 있다. 그리고 이 구절은 한국어의 -(으)ㄹ 수가 없-'와 동일한 뜻으로 해석된다(편무진/岸田文隆, 2005). 특히 (19)ㄷ의 '셰'에 대한 일본어 대역으로 한자 '勢'가 배당되었다. '셰'의 위치에 배당된 '勢'는 (19)ㄴ의 예문에서 우리가 확인하였던 대역어 "기세" 또는 "힘"과 일치한다.

(20)ㄱ에서 아스톤(W.G.Aston) 구장본 필사본『隣語大方』(1841)에 등장하는 '셰'는 일본어 'セイ'(勢)로 대응되어 있으며, 그 후에 간본으로 간행된 『正訂 인어대방』(1882)에서는 이 성분이 이번에는 '슈'(手)로 교체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한국어 학습서 부류들에서 한국어의 특정한 통사적 환경에 출현하고 있는 '셰'는 한자 '勢'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시에 '셰'는 다음 단계에서 '슈'(手)로 바뀌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슈'는 이 계통의 자료에서 일관성 있게 한자 '手'로 대역되어 있다(§3.1에서의 예문 {17}을 참조).[33]

한국어 학습서 부류에서 보이는 이와 같은 '셰(勢)→슈(手)'의 대치 과정은 18세기 후기에서부터 19세기 후기에 걸치는 일련의『交隣須知』계통에서도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21)ㄱ. 침침ᄒᆞ고 줌기니 걸릴 셰(勢,セイ) 업데(苗代川본 4.51ㄴ, 沈壽官본 4.25ㄱ),[34]

ㄴ. 침침ᄒᆞ고 물의 줌기여 걸릴 셰 업고니(小田본 4.52ㄴ, 아스톤본 4.72ㄴ),

ㄷ. 침침이 물에 징겨쓰니 건질 슈 업쑤나(1881년 초간4.51ㄱ, 1883년 재간 4.50ㄴ).

위의 예문 (21)ㄷ에서 바뀌진 '슈'의 일본어 대역은 이번에는 한자 '手'가 아니고, 'ミチ'(길, 방법)으로 나타난다. 특수한 통사적 구성 '-(으)ㄹ 수 없-'에서 '수'가 거의 동일한 의미 영역에 속해 있는 '길' 또는 '일'과 대치되는 예는 우리가 이미 위에서 확인한 바 있다. 이와 같은 한국어 학습서 부류에 등장하는 '셰'(勢)는 자립명사 '셰'(勢)에서 기능상으로 분화되어 전용된 의존명사의 신분으로 사용되었음이 분명하다. 이들 자료에서 자립명사 '셰'(勢)는 다음과 같이 의존명사 '셰'와 공존하여 쓰이고 있었다.

(22)ㄱ. 셰(勢)가 이시면 저마다 두려 ᄒᆞᄋᆞᆸᄂᆞ니(苗代川본 4.39ㄱ, 沈壽官본 교린수지 4.12ㄴ),

ㄴ. 셰를 쏠와 아당ᄒᆞᆫ 쟈ᄂᆞᆫ ᄌᆞ로 츌입ᄒᆞᄋᆞᆸᄂᆞ니(아스톤본 교린수지 4.53ㄴ),

ㄷ. 卽今 勢를 議論ᄒᆞᆯ 쟉시면(아스톤본 교린수지 4.2ㄴ),

cf. 즉금 ᄉᆞ셰(事勢)를 의논허게드면(정정 인어대방 4.12ㄱ).

19세기 전기와 후기에 걸친 다양한 한국어 학습서 부류에서 특정한 통사 환경에 등장

33) 일본어 학습서에 일본어 대역어로 표시된 한자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의존명사 '수'를 '手'로 표시한 것은 어떤 원칙에 의했을 가능성도 있다. 의존명사 '수'가 한자 차용어인 사실은 분명하지만, 지금까지 연구자들에 의하여 한자어 '手/數/術' 등이 적절한 후보로 제시된 바 있다(왕문용 1988, 임동훈 1991, 안주호 1997). 그러나 통상적인 옥편을 따르면, 한자어 '手'나 '數'는 갖고 있는 의미 영역이 "재주, 힘, 기술, 수단, 솜씨, 꾀" 등과 같이 중복되기 때문에 의존명사 '수'의 기원과 관련하여 구태여 구분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34)『交隣須知』계통에서 추출된 자료는 편무진(『【諸本對照】交隣須知』(교린수지의 기초적 연구 별책부록 자료집, 2005, 제이엔씨)을 이용한 것이다.

www.kci.go.kr

하고 있는 ‘셰’의 존재에 대해서 지금까지 파악된 사실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성분은 한자어 ‘勢’에 해당되며, 기능은 의존명사이었다. 둘째, ‘-(으)ㄹ 셰 없-’의 통사 구성에서 ‘셰’는 또 다른 의존명사 ‘수’(手)와 의미와 통사 영역이 일치하였다. 셋째, 19세기 후기에 이르면 점진적으로 보수적인 형태 ‘셰’는 개신적인 ‘수’로 대치되는 경향을 보인다. 여기서 요약된 ‘셰’의 정체를 앞서 제시되었던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의 예문 (18)에서의 ‘셰’형과 대조하면 의미와 통적 기능상으로 완전 일치한다. 따라서 예문 (18)에 등장하는 ‘셰’의 존재가 규명된 셈이다. 또한, 우리가 발굴해낸 의존명사 “셰”는 어느 특정 방언에만 국한된 분포를 보이는 형태론적 특질이 아니라, 19세기 후기 전반적인 국어의 특질이었다.

의존명사 ‘셰’(勢)형이 19세기 후기의 단계에서 보수형인 반면에, ‘수’가 개신형의 신분이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확대하면, 우리가 §3.1 후반부에서 제기했던 의문점에 어떤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수’의 의존명사화가 중세국어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비추어, ‘관형사형+“방법/수단”의 의존명사+존재동사(있/없-)’의 통사적 구성을 그 시기에는 어떠한 통사 장치로 구현하였을까 하는 의문이었다. 이러한 통사적 환경에 우리가 §2에서 살펴 본 “방법”과 “수단”을 뜻하는 ‘길, 법, 일’ 등의 의존명사에 준하는 형태들도 참여하였을 것이지만, 그 중심적인 표현 수단은 ‘셰’이었을 개연성이 있다.

필자가 중세국어의 단계에 ‘관형사형+셰+존재동사’의 통사적 구성이 가능하여서, 의존명사 ‘셰’가 오늘날 의존명사 ‘수’에 의한 의미 영역을 어느 정도 포괄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문헌 자료(한글편지 중심)의 예들이 지속적으로 출현하기 때문이다.

(23)ㄱ. 옴즉ᄒᆞ면 다 놀라이고 ᄒᆞ니 살 셰ᄂᆞᆫ 업시 되엿노라(청주언간.88),
ㄴ. 내 긔오니 하 어히 업ᄉᆞ니 살 셰ᄂᆞᆫ 업ᄉᆞ니 다시 볼 길히 업세라(청언.32),
ㄷ. 시월 동지ᄉᆞᆯ 서ᄉᆞᆯ 졍 이월ᄀᆞ지ᄂᆞᆫ 살 셰 업서(청언.168),
ㄹ. 내사 ᄀᆞᄉᆞᆯ히나 가고져 히여도 살 셰 업고 올믤 ᄆᆞᄉᆞ미 업세라(청언.15),
ㅁ. 명디 긘도 어들 셰 업고 옷 히여 니블 셰ᄂᆞᆫ 올로도 업ᄉᆞ니(청언.21).

위의 예문에 출현하는 ‘셰’는 충북 청주에서 출토된 16세기(1565년-1575년 전후) 한글편지 묶음에서 추려낸 것이다.[35] 이 한글편지를 주해한 조항범(1998)은 위와 같은 통사적 구성에 나오는 ‘셰’를 한자어 ‘勢’로 파악하고, 문맥에 따라서 ‘힘’, ‘기운’, ‘형편’, ‘형세’ 등으로 주석하였다. 따라서 16세기의 편지 글에서 ‘관형사형+셰+존재동사’의 구성에 관용적으로 등장하는 ‘세’는 기본의미인 구상적인 “힘”’으로부터 은유 과정을 거쳐서 일정한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형편”이나, 그것을 이루는 “수단”과 “방법”으로 옮겨오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충북 청주에서 출토된 한글편지에 등장하고 있는 ‘셰’의 쓰임은 19세기 국어에서 우리가 관찰하였던 예들과 완전 일치한다.

또한, 의존명사 ‘셰’는 16세기의 청주지역에만 국한되어 사용된 것이 아니고, 이와 거의 비슷한 시기의 다른 지역에서 출현하였던「마지막 한글편지」에서도 등장하였다. 아래의 예문은 1586년 이응태 부인이 죽은 남편을 보내면서 아무런 경황이 없는 가운데 오로지 슬픔 속에서 작성한 한글편지 내용 일부에서 인용된 것이다. 이 편지가 작성된 당시의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적어도 16세기의 자연스러운 구어에서는 특정한 통사적 환경에서 의존 명사

35) 이 예들은 조항범(1998)에서 판독되고 주석을 단 『순천 김씨묘 출토 간찰』을 이용하였다. 또한, 한글편지 판독의 확인을 위해서 황문환(2002)의 부록1 <충북청주 순천김씨묘 출토 언간>(pp.267-333)도 아울러 참고하였다.

www.kci.go.kr

적 기능을 발휘하였던 ‘셰’의 사용 빈도가 어느 정도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24). 엇디 그런 이를 싱각디 아녀 날을 ᄇᆞ리고 몬져 가시ᄂᆞᆫ고 자내 여히고
아ᄆᆞ려 살 셰 업ᄉᆞ니 수이 자내 ᄒᆞᆫ듸 가고져 ᄒᆞ니 날 ᄃᆞ려가소.

이 한글편지에서 안귀남(1999)과 황문환(2000:138)은 위의 ‘살 셰 업ᄉᆞ니’에 쓰인 ‘셰’를 한자어 ‘勢’로 파악하고, “살 힘(기력)이 없으니”로 해독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셰’의 의미는 중의적으로 파악되기도 한다. 즉, 이 문법형태는 기본의미 “힘”에서 출발하여 은유화를 거쳐 오늘날 의존명사 ‘수’에 접근한 “수단”과 “방법”으로까지 확대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의존명사로서의 ‘셰’(勢)의 쓰임은 그 이후의 단계 17세기에서도 지속되었다. 그러나 이 형태가 간본 중심의 문헌 자료에 반영된 문어체에서 사용된 예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단지 아래와 같은 한글편지(1664년)의 형식 가운데 시대와 장소를 달리하여 다시 등장한다는 사실이 특이한 것이다. 동시에 이 편지에는 ‘셰’가 쓰이는 동일한 통사적 환경에서 의존명사 ‘긿’과 교체되어 공시적으로 공존하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한다(§2.1의 예문 {1}을 참조).

(25). 아ᄆᆞ도 그것 지어 제 귀실도 ᄒᆞᆯ 길히 없다 ᄒᆞ니 민망ᄒᆞ여 ᄒᆞ나이다. 예 잇ᄂᆞᆫ 누의 동싱들도 이것ᄃᆞᆯ 가지고 돌님제도 ᄒᆞᆯ 길 업ᄉᆞ니 종가의셔 졔ᄉᆞ나 ᄒᆞ라 ᄒᆞ딕 종도 외방 거실 분 아냐 어린 거시 만코 뎐디ᄂᆞᆫ 더욱 졔 귀실도 ᄒᆞᆯ 셰 업ᄉᆞ니 내 집 ᄒᆞ나 모양 못ᄒᆞ고 님자ᄂᆡ도 ᄂᆡ 갓가이 이시니 내 어이 ᄒᆞ리잇가.(「해남윤씨 어초공파 고문서 간찰 부류」, 127쪽).

지금까지 16세기 국어의 구어에서부터 19세기 후기의 단계에까지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는 의존명사 ‘셰’의 용법에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추정을 하려고 한다. 의존명사 ‘수’의 출현 이전에, 중세국어의 단계에서 ‘관형사형+“수단”과 “방법”을 뜻하는 의존명사+존재동사’와 같은 통사적 구성은 먼저 ‘길/법/일’과 같은 자립명사에서부터 문법화 과정을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근대국어에서 일반화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표현 수단의 전개 과정에서 원래 ‘힘’을 기본 의미로 하는 자립명사 ‘셰’(勢)도 맥락에 따른 의미의 재해석을 거쳐 “수단”과 “방법”을 나타내는 통사적 환경에 합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어에서 의존명사 ‘셰’가 사용되는 분포는 같은 시대에서도 다른 유형의 의존명사 ‘길/법/일’의 경우보다 넓었을 것이지만, 중세국어에서부터 문법화의 잠재성을 갖고 있었던 ‘슈’(§3.1을 참조)가 근대국어의 단계에서 점진적으로 그 영역을 확대하면서 의미체계의 과도한 중복을 초래하게 되었다. 근대국어에서 의존명사화를 거친 생산적인 ‘슈’(手/數)의 세력은 동일한 통사구조에서의 의존명사 ‘길/법/일’ 등의 사용 영역에 뿐만 아니라, 종래의 ‘셰’에까지 잠식해 왔을 것이다. 그 이유는 개신형 의존명사 ‘슈’가 “수단” 또는 “방법”의 의미 영역 이외에 통상적인 ‘길/법/일/셰’ 등의 경우보다 맥락에 따른 더 포괄적이고 동시에 추상적인 이미 영역을 나타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36] 따라서 20세기 국어에 들어와서 ‘관형사형+“수단”과 “방법”을 뜻하는 의존명사+존재동사’의 통사 구조에 19세기에 발달하였던 의존명사 ‘법’과 ‘일’이 제외되기 시작하였다. 우리가 앞에서 예문 (18)-(21)을 통하여 관찰하였던 19세기 후기 국어에서의 ‘셰→슈’와 같은 대치 현상도 이러한 유기적 관계를 반영

36) 이주행(1983)은 현대국어에서 명사구 보문이 갖고 있는 의미 자질의 유형에 근거하여 의존명사 ‘수’가 나타내는 추상적인 의미를 뒤따르는 존재동사에 따라서 “능력”에서부터 “자격”, “겨를”, “형편”, “처지”, “필요” 등까지 포괄하는 11가지를 추출한 바 있다. 의존명사 ‘수’가 갖고 있는 맥락에 따른 의미의 다양성 또는 모호성은 이와 유사한 다른 어떤 의존명사 유형보다도 더 전형적인 의존 명사적 속성을 대변하는 것이다. 따라서 근대국어의 단계에서 ‘셰→슈’의 대치 과정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된다.

www.kci.go.kr

하였던 것으로 생각한다.[37]

4. 19세기 국어 방언 서 의 사 기능의 축소 새로운 형성

4.1 의존명사 '마듸'(節)의 생성과 탈락

지금까지 §3에서 우리가 제시하였던 19세기 후기 국어에서 의존명사 '슈'(手/數)의 점진적인 기능의 확대가 이와 유사한 의미영역을 담당하고 있었던 기존의 '길/법/일' 그리고 '셰'(勢) 등과 같은 의존명사들의 폐용 또는 기능 축소로 유도되는 과정은 시간을 나타내는 다른 유형의 의존명사들이 맺고 있는 유기적인 관계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근대국어에서 시간을 뜻하는 의존명사로 왕문용(1988:221-240)은 통합 환경과 문법기능 그리고 의미의 상호 관계를 기준으로 '적, 즈음, 동안, 이릐, 중, 차' 등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시간 의존명사들 가운데 중세국어에서 계승된 '적'만 제외하면, 다른 여타의 성분들은 근대국어의 시기에 새로 형성된 것으로 판단하였다(1988:238).

시간 의존명사에 관한 한, 근대국어는 그 이전 단계의 중세국어에서보다 생산적인 의존명사를 발달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비로소 근대국어에 와서 시간 관계 개념의 의존명사가 대거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성분들이 상호 맺고 있는 유기적인 관계는 어떠한 것이었을까? 이러한 필자의 의문과 관련하여,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에서 '관형사형+의존명사+에'와 같은 통사적 구성에 등장하고 있는 '마듸'(節)의 용례를 제시하려고 한다.

(25)ㄱ. 츈향아 쥭단 말리 원 말이냐...한창 이리 울 마듸여 옹상인 ᄂᆡ다라 보고
(완판 29장본 별춘. 23ㄱ),
=츈향아 쥭단 말리 웬 말린야 한창 이리 울 마듸예 옹ᄉᆡᆼ인 형제 바릐보고(필사 성열.201),

---

37) 의존명사 '셰'의 후속형은 오늘날의 지역방언에서 쉽게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19세기 후기 전라방언 자료 가운데 '셰'(勢)의 변화형(셰>시)이라고 생각되는 '시'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ㄱ). 입의 맛난 반츤 업다 안졋던 물방이집 불도 노와 보랴 ᄒᆞ고 별 시를 ᄆᆡ양부려(판.박.332),
cf. 별 시를 毋樣부려(성두본 B, 박타령.4ㄱ),
암만히도 별 슈 업다(판.박.332).
위의 예에서 '별 셰'에서 '별 시'로 변화되었을 가능성은 『전남방언사전』(이기갑 외, 43쪽)에서 방언 표제어 '국'(안쪽, 속)의 설명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전남방언의 예문에서 발견된다. 즉, "이 고을 국이 좁아 가지고 풍수설을 놓고 본다면 별 시가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표준어 대역은 역시 이 사전에서 "별 세가 없다고 합니다"로 대응되어 있다.
의존명사 '수'의 다른 지역 방언형들은 '쉬'로 분포되어 있다. 이 '쉬'형은 '수'(手/數)에 명사파생접미사 '-이'가 연결된 형태로 보이는데, 20세기 초반(러시아 카잔 자료)에서부터 주로 함북방언 등지에서 쓰이고 있다(이 글의 각주 {2}를 참조).
(ㄴ). kamuŋgi ət'i har šü əpsə(가뭉기 어띠 할 쉬 없서, <철자 교과서> 35.47),
put'ur-s'ü^{y}(붙을 쉬, <로한회화> p.xiii).
(ㄷ). 쉬→ 피양 가 귀겨: 하이 당초에 그 어디메 얘기 할 쉬 업지비, 너무 조:우이까데(동북방언, (『조선어방언학개요』(하), 김병제 1975: 6).

37)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에서 '마듸'는 자립명사로 다음과 같이 쓰이고 있다.
(ㄱ). 그 말 한 마듸여 말궁기가 열이엿제(수절가,상.22ㄴ),
=그 말 한 즈리여 말구무가 열여썻다(장자백 창본 춘향가,14ㄴ),
(ㄴ). 인경 첫 마듸 칠 ᄯᅢ 마닥(수절가,상.29ㄱ).
그러나 다음과 같은 상황에 쓰인 '마듸'의 의미는 구상적 의미에서 은유적으로 전이된 추상적 의미를 나타내었기 때문에, 일종의 다의(polysemy) 단계를 형성하고 있다.
(ㄷ). 두 쥴 눈물이 말소릐을 쏘츳 써러지니 진실로 만고상심 ᄒᆞᆫ 마듸라(완판.길동.31ㄴ).

www.kci.go.kr

=이고 츈향아, 네가 이게 웬 일인야 ᄒᆞᆫ창 이리 야단ᄒᆞᆯ 제 그 빈소가 옹칭원의 빈소로다(완판 33장본 열녀춘향수절가, 병오,춘.25ㄱ),
=한창 이리 울 적의 원상인 ᄂᆡ다라 보고(필사본 성열.23ㄱ),
=한참 이리 할 지음의(장자백 창본 춘향가,32ㄱ),

ㄴ. 七星임前의 비난이다 지셩으로 빌 마듸의, 잇ᄯᅴ 어사또 허허 웃고(박순호 소장 68장본 춘향가 55ㄱ).

ㄷ. 한참 이리 할 마듸여 후ᄇᆡᄉᆞ령이 나오든이(장자백 창본 춘향가.28ㄱ).

위의 예에서 '-(으)ㄹ+마듸+에'의 통사 구조에 쓰인 '마ᄃᆡ'는 같은 시기의 다른 이본들에는 '제', '적', '지음'으로 교체되어 나오는 사실이 주목된다. 따라서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에서 이와 같은 환경에 쓰이는 '마듸'의 경우는 일정한 시간의 연속 가운데 한 때를 지칭하는 다른 의존명사들과 거의 유사한 의미 영역에 속하였던 동의어들로 보인다. 그렇지만, 19세기 전라방언 자료에서 위와 같은 예들의 출현 빈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마듸'의 쓰임은 이 시기에서 매우 보수적이거나, 전라방언의 징표성이 강한 반면에, 일반화되어 있고 분포가 넓은 시간 의존명사 '적', '즈음' 등으로 바뀌지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 같다.[38]

또한, 이 시기의 방언 자료에서 동일한 '마듸'가 미래 관형사형 다음에 통합되지만, 처격조사 이외의 다른 격조사가 뒤따르는 경우도 산발적으로 나타난다.

(26). 이 글 ᄯᅳᆺ셜 낫낫치 ᄉᆡ여보면 ᄲᅦᄭᅩᆼ 쌀 마듸가 만는니라(장자백 창본 춘향가 19ㄴ),
= 낫낫치 ᄉᆡ겨 보면 ᄲᅦᄭᅩᆼ 쌀 일리 만하지야(수절가,상.15ㄴ),
= 천ᄌᆞ을 맛시 잇게 일그면 ᄲᅦᄭᅩᆼ 쌀 ᄃᆡ 만ᄒᆞ지야(백성환 창본 춘향가 8ㄱ).

예문 (26)에 등장하는 '마듸'는 역시 이 시기의 다른 유형의 이본들에서 시간의 개념과 관련이 없는 '일'과 'ᄃᆡ'로 바뀌져 있는데, 화자가 인식하는 어느 특정한 "경우" 또는 "상황" 정도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25)에서의 통사적 환경 '-(으)ㄹ+마듸+에'와, (26)의 '-(으)ㄹ+마듸+가'에 출현하는 '마듸'는 원래의 구상적 의미에서부터 "일정한 시간이나 상황의 한 때"의 추상적인 의미로 전환되었다. 이와 같은 의미변화의 원리는 인지적 영역간의 전이(節→시간→상황)를 거치는 은유화 작용이 개입되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에서 위의 예문에 쓰이는 '마듸'는 의존명사의 범주에 귀속된다고 생각한다. '마듸'가 출현하는 위의 두 가지 통시적 환경 가운데, '-(으)ㄹ+마듸' 다음에 처격조사와만 통합되는 강한 제약을 갖고 있으며, 또한 "시간의 한 대목"으로 의미가 뚜렷하게 분화된 (25)의 예들이 문법화의 진행 척도에 있어서 다른 환경에서 보다 한 걸음 앞서 진전된 단계를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환경에서 등장하는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의 '마듸'의 선행 형태는 이미 15세기 국어에서도 거의 유사한 의미와 기능을 보이고 있었다.

(27)ㄱ. 나랏 法에 자피여 ᄆᆡ여 매 마자 獄애 가도아 罪니블 ᄆᆞᄃᆡ며(석보 9.8ㄴ),
ㄴ. 내 來世예 菩提 得ᄒᆞᆫ 時節에 ᄒᆞ다가 獄애 가도이거나 罪니블 ᄆᆞᄃᆡ어나(월석 9:25ㄱ),

38) 19세기 후기 전라방언 자료에서도 비판소리계 영웅 고소설 부류에는 의존명사 '마듸'가 잠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통시적 구성 '-(으)ㄹ+마듸'의 자리에 통상적인 '즈음'이 대부분 나타난다.
창으로 지르려 할 지엄의(삼국지 3.38ㄱ), 급피 ᄲᆡᆯ 지음의 됴됴 발셔 멀이 도망 ᄒᆞ거늘(삼국지 3.38ㄴ).

www.kci.go.kr

ㄷ. 주으려 밥 얻고져ᄒᆞ야 모딘 업 지슬 마ᄃᆡ예(월석 9.25ㄴ),
ㄹ. 俱夷이 아ᄃᆞᄅᆞᆯ 나ᄒᆞ실 時節에 王이 월식ᄒᆞ게ᄒᆞᆯᄊᆡ 日食ᄒᆞᆯ ᄆᆞᄃᆡ예(월석 2.2ㄴ).
(28)ㄱ. 그저긔 太子ㅣ 울며...무틔 올아오ᄂᆞᆫ ᄆᆞᄃᆡ예(월석 8.101ㄴ),
ㄴ. 어미 밥 가져 오나ᄂᆞᆯ 머구려 ᄒᆞ시ᄂᆞᆫ ᄆᆞᄃᆡ예(석보 11.41ㄴ),
ㄷ. 尊者ㅣ ᄒᆞᆫ 나모아래 안자 入定ᄒᆞ야 뉘 所作인고 ᄒᆞ야 보ᄂᆞᆫ ᄆᆞᄃᆡ예(월석 4.20ㄱ).

위의 예들에 등장하는 'ᄆᆞᄃᆡ'의 통사적 환경에서 선행 성분인 관형사형은 (27)의 '-(으)ㄹ+ᄆᆞᄃᆡ'와, (28)에서의 '-(으)ㄴ+ᄆᆞᄃᆡ'로 구분된다. 이러한 관형사형의 차이는 15세기 국어에서는 서로 다른 의미의 또 다른 분화를 아직 야기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ᄆᆞᄃᆡ'의 후속 성분으로는 처격조사 '-에' 이외에 여타의 활용어미 '-며/-어나' 등이 연결되었기 때문에 아직 엄격한 통시적 제약은 출현하지 않았다. 홍기문(1966:278)은 일찍이 위의 예들의 쓰임을 주목하였고, 이와 같은 통사적 구성에 쓰인 출현하는 'ᄆᆞᄃᆡ'는 구상적 의미에서 시간의 의미로 전용된 것으로 기술하였다. (27)의 예문에서는 '(으)ㄹ+ᄆᆞᄃᆡ예'와 동일한 구문에서 '-(으)ㄹ 時節에'로 교체되어 사용되었다. 이 시기에 '時節'의 범위는 일정한 시간의 흐름을 경계로 하는 개념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長者ㅣ 鴛鴦이ᄅᆞᆯ 자바 네 아ᄃᆞᆯ 어듸 가뇨 ᄒᆞ고 還刀ᄅᆞᆯ 메어ᄃᆡᆯ 時節에 鴛鴦이 놀애ᄅᆞᆯ 블로ᄃᆡ(월석 8.102ㄱ).

15세기 국어에서 엄격한 통사적 제약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으나, 기본적 의미에서 이차적인 시간의 의미로 전환된 'ᄆᆞᄃᆡ'의 용례들은 초기의 문법화의 과정에 진입하기 시작한 단계를 표출하고 있었던 것으로 필자는 파악한다. 여기에 관여하는 문법화의 필수적인 첫 단계는 15세기 국어에서 관형사형을 선행 성분으로 하는 특정 위치의 'ᄆᆞᄃᆡ'의 예들에서 문맥에 따른 의미의 재분석을 통하여 시간의 의미로 유추되어 다의어를 형성한 다음, 이러한 이차적 의미와 통사적 구성이 관용적으로 굳어지기 시작하여 확산되는 단계를 말한다(Eckardt 2006:39).

허웅(1975:274-300)과 고영근(1995:69-94)에서 중세국어의 의존명사 목록으로 (27)과 (28)의 예문에 등장하는 'ᄆᆞᄃᆡ'는 언급된 바 없다. 그러나 통사론적 기능의 관점에서 강성일(1993:83)은 위의 'ᄆᆞᄃᆡ'를 전형적인 "불완전명사"의 한 유형으로 간주하였다. 즉, 이 성분의 의미는 "경우"로 이전되었으며, '용언의 관형사형+의존명사+다양한 조사'와 같은 기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기술하였다.[39]

그 이후 위에서와 같은 특정한 통사적 구성에 등장하는 'ᄆᆞᄃᆡ'의 용례는 중세국어 후반과 17세기 국어의 문헌 자료에서 적극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15세기 국어 이후의 역사적 과정에서 시간을 뜻하는 의존명사 체계에서 'ᄆᆞᄃᆡ'(時節)의 완전한 소멸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중엽 정도의 일본어 학습서 계통의 자료에 의존명사 'ᄆᆞᄃᆡ'의 사용이 다시 확인된다.

(29). 그거시 져기 失色ᄒᆞ기ᄂᆞᆫ ᄆᆞᄅᆞᆯ ᄆᆞᄃᆡ 陰乾을 아니 ᄒᆞ고 陽乾을 ᄒᆞ여(1790년간, 인어대방 1.2ㄱ).
(30)ㄱ. 貴國 武官ᄂᆡ 常時의 出朝ᄒᆞ실 ᄆᆞᄃᆡᄂᆞᆫ 還刀 ᄊᆞ고 行次 ᄒᆞ시옵나(경도대학장본 필사본 표민대화, 상. 54ㄴ),[40]

39) 또한, 이주행(1988)은 중세국어의 의존명사 후보 목록으로 'ᄆᆞᄃᆡ'를 검증한 바 있다. 그러나 그는 이 'ᄆᆞᄃᆡ'의 통사적 환경이 엄격한 의존명사 선정 기준에 미달하는 "관형어의 선행을 수의적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자립명사로 취급하였다.(44쪽).

40) 예문 (30) 이하는 편무진과 岸田文隆이 공편한『<漂民對話>: 해제 · 본문 · 색인 · 원문』(2006, 불이문화)에

www.kci.go.kr

ㄴ. 彼我國의 吉凶事 계실 ᄆᆞᄃᆡ 大馬州ᄭᅡ지 보내ᄋᆞᆸ신 使者 잇ᄉᆞᆸᄂᆞᆫᄃᆡ....그 渡海官의 日本 判事 나올 ᄆᆞᄃᆡᄂᆞᆫ(아스톤본 필사본 표민대화, 중.16ㄱ),
ㄷ. 처음의 만나 말ᄒᆞᆯ ᄆᆞᄃᆡ 서로 分明치 아닌 말이 혹 잇ᄉᆞᆸ나요(아스톤본,중.48ㄴ).
ㄹ. 그 줄은 擧帆ᄒᆞᆯ ᄆᆞᄃᆡ 쓰ᄂᆞᆫ 종요로운 줄이올ᄉᆡ(아스톤본,하. 20ㄱ).
ㅁ. 德源의 가셔 게셔 平海의 갈 ᄆᆞᄃᆡ 壤陽 사ᄅᆞᆷ 두명 우리들 ᄇᆡ의 ᄐᆡ이고(경도대학장본, 상.9ㄴ),
ㅂ. 연훈나모ᄂᆞᆫ 來日 ᄉᆞ이 가져오게 申飭이 되엿기의 져 갈 ᄆᆞᄃᆡ 제 ᄇᆡ의 시러가게 ᄒᆞ고 경도대학장본,상.36ㄱ),
ㅅ. 연훈ᄒᆞᆯ ᄆᆞᄃᆡᄂᆞᆫ 거인木 업ᄉᆞ셔ᄂᆞᆫ 못ᄒᆞᄋᆞᆸ기의(경도대학장본,상.36ㄴ),
ᄇᆡ질ᄒᆞᆯ ᄆᆞᄃᆡᄂᆞᆫ 正南針 업ᄉᆞ셔ᄂᆞᆫ 못ᄒᆞᆫ 거시요(경도대학장본,상.43ㄴ).

위의 예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ᄆᆞᄃᆡ'의 통사적 환경은 모두 '-(으)ㄹ+ᄆᆞᄃᆡ'의 구문으로만 등장하였다. 그리고 의존명사 'ᄆᆞᄃᆡ'에 후속되는 성분들은 조사에 한정되어 있으나, 중세국어 단계에서의 예들과 마찬가지로 비교적 자유롭다. (30)ㄴ-ㅂ의 예에 사용된 'ᄆᆞᄃᆡ'의 경우에 후속되는 처격조사가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처격조사의 생략은 'ᄆᆞᄃᆡ'가 시간을 담당하는 체언으로 확립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41] 또한, 필사본『漂民對話』의 예문들 가운데에는 의존명사 'ᄆᆞᄃᆡ'의 출현이 기대되는 통사 구성에서 전형적인 시간명사 '째'(時)로 교체된 사례도 발견된다. 고기 잡으라 나갈 째 계집을 ᄃᆞ려 가오리잇가(경도대학장본,상.3ㄱ).

예문 (30)을 추출한 필사본『漂民對話』의 전체 텍스트에서 위에서 언급된 특정한 통시적 환경에 나타나지 않는 자립명사 'ᄆᆞᄃᆡ'는 원래의 구상적인 의미 이외에 추상화된 시간의 개념을 표출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으)ㄹ+ᄆᆞᄃᆡ'의 구성에서만 이 성분이 원래의 기본의미에서 이탈하여 이차적인 추상적인 의미 영역으로 옮겨왔다. 따라서 19세기 중반의 국어에 반영된 (30)에서의 'ᄆᆞᄃᆡ'의 기능이 단순한 다의어의 신분을 넘어서 의존명사의 범주에 가까웠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와 같은 관점은 우리가 예문 (25)에서 관찰하였던 19세기 후기 전라방언 자료에서의 '마듸'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필사본『漂民對話』와 비슷한 시기인 1840년대에 필사된 다른 유형의 한국어 학습서『인어대방』계통에서는 의존명사 'ᄆᆞᄃᆡ'의 쓰임이 1882년 간행본 『정정 인어대방』에서 '째'(時)로 대치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ᄆᆞᄃᆡ→째'와 같은 교체 과정은 우리가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에서의 예문 (25)을 통하여 관찰하였던 '마듸→적, 지음'의 교체와 유사한 경로를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19세기 후기 국어에서 불투명해진 의존명사 '마듸'의 기능이 대폭 축소되면서, 다른 기존의 투명한 시간 명사나 의존명사들로 대치되어가는 단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31)ㄱ. 우리가 막 辛苦ᄒᆞᆯ ᄆᆞᄃᆡ난 아론체도 아니 ᄒᆞ다가(1841년 필사 아스톤본 인어대방 4.7ㄴ),
= 우리가 막 신고ᄒᆞᆯ ᄯᅢ는(정정 인어대방 7.4ㄴ),
ㄴ. 나라 일 ᄒᆞᆯ 마듸 親 不親이 잇사올까마는(아스톤본 5.8ㄴ),
= 나라 일 ᄒᆞᆯ 째에(정정 인어대방 8.4ㄴ),
ㄹ. 지난 적의 巡營갈 ᄆᆞᄃᆡ 落馬를 보고(아스톤본 6.22ㄱ),[42]

서 추출한 것이다.

41) 시간과 처소명사의 경우에 역사적으로 처격조사가 탈락하여 등장하는 경향에 대해서는 박진호. 황선엽. 이승희(2001)을 참조.

42) 이 예문들에서 '-(으)ㄹ ᄆᆞᄃᆡ' 구성은 일본어 대역으로 toki(時에, 때) 등과 대비되어 있다.

www.kci.go.kr

= 지난번 巡營갈 때에 落馬ᄒᆞ야(정정 인어대방 9.9ㄴ),
ㅁ. 빅 갈 ᄆᆞᄃᆡ 奇別ᄒᆞ여 주옵쇼셔(아스톤본 5.16ㄴ),
= 빅 갈 때에 다시 긔별허여 주시오(정정 인어대방 8.8ㄴ).
ㅂ. 口尙乳臭한 거시 대사에 말을 ᄒᆞᆯ ᄆᆞᄃᆡ 어룬을 犯接ᄒᆞ여(아스톤본 4.20ㄱ),
=어룬들이 대ᄉᆞ를 말허는 데 범접허여(정정 인어대방 7.10ㄴ).

위의 예에서 (31)의 경우는 '-(으)ㄹ+ᄆᆞᄃᆡ'의 통사 구성이 다음 시기에 시간보다는 연결어미 '-는데'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선행하는 필사본과 후행하는 간본 사이에 구사된 말의 스타일의 차이에서 비롯된 통사 구조의 차이에서 파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의존명사로서의 'ᄆᆞᄃᆡ'(時)는 언어 표출의 측면에서 지금까지 위에서 제시된 자료들과 그 성격이 판이한 개화기의『독립신문』(1897-1898)에서도 다음과 같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의존명사 'ᄆᆞᄃᆡ'는 지역 방언적 분포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19세기 후기의 국어에서 어느 정도 폭넓은 사용지역을 보유하였을 것이 분명하다.

(32)ㄱ. 사무에 극히 요긴ᄒᆞᆫ ᄆᆞᄃᆡ가 잇시면(독립1897.09.30),
ㄴ. 므릇 경찰 ᄒᆞᄂᆞᆫ 것이 혹 쇼홀ᄒᆞᆫ ᄆᆞᄃᆡ가 만ᄒᆞ더니(독립1898.01.29),
ㄷ. 룡동 근쳐에 슌찰ᄒᆞ난 ᄆᆞᄃᆡ 긔병 김션명의게 잡히여(독립1898.02.12),
ㄹ. 잡보ᄂᆞᆫ 간혹 샤(私)가 씨인 ᄆᆞᄃᆡ가 잇ᄂᆞᆫ듯 ᄒᆞ니(독립1898.04.12),
ㅁ. 신문이 론셜과 잡보들이 대단히 쟈미가 잇서 볼만ᄒᆞᆫ ᄆᆞᄃᆡ가 만히 잇더라(독립1898.05.21),
ㅂ. 구름 ᄀᆞᆺ치 모혀 구경들 ᄒᆞᄂᆞᆫ 모양은 실노 창피ᄒᆞᆫ ᄆᆞᄃᆡ가 만타더라(독립1898.05.26),
ㅅ. 그 쟈셰ᄒᆞ고 확실ᄒᆞᆫ ᄆᆞᄃᆡ를 다시 더 ᄎᆡ탐ᄒᆞ여 보랴고(독립1898.06.14).

위의 예문 (32)에서 'ᄆᆞᄃᆡ'는 주로 '-(으)+ᄆᆞᄃᆡ'의 통사적 구성에서만 주로 사용되는 사실이 (30)에서 제시하였던 19세기 중반의 한국어 학습서 계통의 예들과 대조를 이룬다. 그렇지만,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에서 추출된 (25)와 (26)의 예들은 '마듸'의 의미가 각각 "시간"과 "상황/경우"로 재해석되는 두 가지 유형의 통사적 구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의존명사 '마듸'가 쓰이는 통사 환경상의 차이가 19세기 국어의 지역방언의 분화에 따른 결과를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현대국어에 들어와서 의존명사 '마듸'는 여러 지역방언들에서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43] 이와 같이 현대국어에서 의존명사로서 '마듸'의 기능이 대폭 축소되어 가는 경향은 20세기 초엽의 산물인 『신소설』 부류에도 반영되어 있다. 인구젼파(人口傳播)ᄒᆞ기가 어려운 마듸가 만히 잇셧ᄂᆞᆫᄃᆡ(1908년, 은세계.96).

4.2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에서 새로운 시간 의존명사 '도막' 의 형성과 확대

시간의 분절 단위를 의미했던 의존명사 '마듸'가 19세기 후기 국어 이후의 자료에서 사라지는 현상과 관련하여, 19세기 후기 전라방언 자료에 이와 유사한 의미 영역을 소지하고

43) 박용후의 『제주방언연구』(1988, 고대민족문화연구소,)에서 표제어로 'ᄆᆞ디'가 등록되어 있다. ᄆᆞ디: 시기, 시절(16쪽). 이 제주 방언형 'ᄆᆞ디'가 쓰이는 구체적인 용례가 이 사전에서 제시된 바 없다. 아마도 이 성분은 우리가 본문의 예문 (25)와 (30)등에서 관찰하였던 '-(으)ㄹ+ᄆᆞ디'의 통사 구성에서 사용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편집된 『제주어 사전』(제주도, 1995)에서 이 방언의 표제어 'ᄆᆞ디'가 구상적 의미로만 반영되어 있는 사실을 보면, 'ᄆᆞ디' 역시 이 방언에서 의존명사로서 기능이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www.kci.go.kr

새롭게 출현하기 시작하는 '도막' 형태가 주목된다.

(33)ㄱ. 더운 진지홀 도막의 시장ᄒᆞ옵신듸 우션 요구나 ᄒᆞ옵소셔(완판 33장본,병오,춘.27ㄴ),
더운 밥할 도막으 우션 시장ᄒᆞ옵신듸 요구나 ᄒᆞ옵쇼셔(필사.별춘 353).
ㄴ. 더운 진지할 동안의 우션 요구나 ᄒᆞ옵쇼셔(장자백 창본 춘향가, 57ㄴ),
더운 진지할 동안의 시장하신듸 우션 요구하옵소셔(수절가,하.32ㄱ).

위의 예들은 『열여춘향슈졀가』에 등장하는 원형적인 담화 내용을 시대적으로 약간씩 차이 나는 몇 가지 이본들의 특징에 따라 의미는 대략 일치하지만, 다른 말의 스타일로 바꿔 놓은 것이다. (33)ㄴ에서와 같이 특정한 통사적 구성 '-(으)ㄹ+ 동안+ 의'에 등장하는 시간의 '동안'은 (33)ㄱ에서는 '도막'으로 대치되었다. 원래 자립명사 '도막'의 구상적 의미는 '마디'(節)의 경우와 동일하게 시간의 분절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33)의 예문은 '도막'이 위와 같은 특정한 통사 구조에서 출현하는 경우에 그 의미가 은유화를 거쳐 구상적 영역에서 분화되어 분절된 시간 개념의 '동안'과 동의어를 형성하고 있음을 가리킨다.[44]

이 예들만을 갖고서 이 시기에 역사적 연속성을 보이는 보수형 의존명사 '마듸'가 '-(으)ㄹ+ 의존명사'의 구성에서 그 소임을 다하고, 개신형 '도막'으로 대치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에서 (33)의 예는 시간 분절 관련의 의존명사 체계에 어떤 변화가 개입되어 있었음을 보인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이와 같이 추정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즉, 오늘날의 전북과 전남의 지역방언에서 예전의 의존명사 '마듸'의 후속형이 사용되고 있는 예는 쉽게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시간의 의존명사로서 쓰이는 '도막'의 용례는 이 지역방언에서 매우 흔하게 발견된다. 전북 부안과 전남 진도방언에서 사용되고 있는 '도막'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4)ㄱ. 이것을 묵고 내 문을 잠그고 나올 도막은 그러고 있으라고. 배깥에 나오지도 말고(5-3. 한국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읍 18: 70, 신사임 74세),
ㄴ. 아, 갈 도막으 문자를 잊어 부렀어(상동. 부안읍 22: 85, 김판술 74세),
ㄷ. "너 이놈을 나 어디 갔다 올 도막으 몇 갠가 셔 내노라" 고 허면서(상동. 줄포 13: 291, 최창원 63세).
(35). 진도로 옴시로도 항상 자기 시아버이를 못 믿어갖고 "내가 없는 도막에 소변이나 대변이나 보는 데도 지장이 있고(6-1. 전남 진도군편, 군내면 설화 31: 172, 조공한 47세).

위의 예에서 의존명사 '도막'의 선행 통사적 구성은 '-(으)ㄹ+ 의존명사'와 '-(으)ㄴ+ 의존명사'로 구분된다. 전자의 통사적 환경에서 시간의 개념인 '때' 또는 '동안의 뜻으로 파악되는 반면에, (35)의 예와 같은 후자의 환경에서는 시간의 의미보다 화자가 인지한 '상황'이나 '경우'의 의미가 더욱 강한 것 같다. 이와 같이, '도막'에 앞서는 관형사형의 유형에 따라 분화된 의미의 발달(시간→상황/경우)은 우리가 §4.1의 예문 (31)-(32)에서 관찰한 'ᄆᆞᄃᆡ'의 경우와 어느 정도 일치한다.

'-(으)ㄴ+ 도막'의 통사 구성에서 의존명사 '도막'의 의미가 시간의 개념을 넘어서, 일정한 사건의 연속 가운데 어느 '상황'이나 '경우'와 같은 화자 중심의 양태성으로 이행한 과정은 비교적 후대에 형성된 것 같다. 즉, 자립명사 '도막'의 문법화의 첫 단계는 미래 관형사

44) 근대국어에서 시간 의존명사 '동안'의 통합 환경과 문법 기능 그리고 의미에 대한 기술은 왕문용(1988:229-232)을 참조.

www.kci.go.kr

형 '-(으)ㄹ-' 앞에서 관용적으로 이 성분이 쓰이게 되면서 시간성의 의미로 발달한 것이다. 그 다음 단계로 '도막'이 '-(으)ㄴ+의존명사'의 구성에서 시간에서 양태성으로 이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의 전남과 전북 방언에서도 '-(으)ㄴ+도막에'의 구성에서 여전히 시간성을 감지할 수 있는 예들도 확인된다. "넘의 집이만 한 약 40년을 살았단 말여. 사십년을 사는 도막에 그때까지 장개를 못 갔어. 근디 한 40년 살도록"(0x84A1).[45] 그러나 『한국구비문학대계』의 전남과 전북 편에서 추출된 다른 예문에서는 '-(으)ㄴ+도막'의 통사 구성에서 시간성의 의미는 제거되어 있다.

(36)ㄱ. 그러니 날으는 사램이 세상으 어디가 있어? 날짐승 아닌 도막으는. 근게 공연시리 중국서 트집 잡니라고 허는 소리지(p.713),
ㄴ. 그런게서나 참 팔자 태인 도막은 헐 수 없고나, 그러고서는 그냥 그날 저녁으(p.966).[46]

오늘날의 전북 완주군 일대의 중년층의 화자들에까지도 시간성 의존명사 '도막'의 쓰임이 생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47] 특히, 전남방언의 경우에 자립명사로서 어떤 물체의 일부인 "짧고 작은 동강"에서, 시간의 동강으로 분화된 의존명사와의 범주상의 구분이 음운론적으로 실현되어 있다. 즉, 물리적인 개념에는 자립명사 '토막'으로 변화한 반면에, 시간의 개념에는 유기음화되지 않은 의존명사 '도막'형으로 사용된다(주갑동 2005: 98).

5. 결 론: 요약 남는 문제들

5.1 필자가 이 글을 시작하게 된 원래의 동기는 19세기 후기 전라방언 자료에 특정한 통사적 구성에서 산발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미지의 형태소 '세'(勢)와 '마듸'(節)의 정체를 단순히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오늘날의 전남과 전북의 지역방언 어디에서나 이 형태소들의 반사체를 좀처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의 '세'와 '마듸'의 쓰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근대국어와 현대국어의 "의존명사"라는 거대하고, 동시에 난해하기 짝이 없는 문법 범주 속에 들어와서 방황하게 되었다. 더욱이 지금까지 공시와 통시적 입장에서 의존명사에 대해서 축적되어 있는 수많은 연구 업적들 가운데, 필자가 단편적인 의존명사 '세'(勢)와 '마듸'(節)의 존재만을 갖고서 여기에 보충할 수 있는 여지가 전연 없었음은 당연한 사실이었다.[48]

---

45) 이 예문은 말뭉치로 구축된 『한국구비문학대계』 전남과 전북 편(이길재 제공)을 SynKDP 1.55를 이용하여 추출한 것이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처의 정확한 하위 지역과, 자료의 쪽수를 밝힐 수 없었다. 본문의 (36)의 예문들도 마찬가지이다.

46) 『한국구비문학대계』 전남과 전북 편(이길재 제공)의 자료에 의하면, '도막'은 시간성 의존명사(ㄱ)와 접사(ㄴ)로서의 양면성을 나타내고 있다.
ㄱ. 미안하던가 상을 하나 이렇게 채려가 줘. "우리 요 끝날 도막 밥이랑 술이랑 많이 먹고.."(0x3ffb),
쌀이랑 돈이랑 후허게 갖다 줬는디, 그놈만 먹을 도막으는, 안 떨어질 도막으는 잘 먹고 지내야(p.721).
ㄴ. 야야, 내가 너를 말이지 십 년도막이나 공부를 시긴 내가 너 서울 과개허로..(p.171),
이러고 저러고 해서 연거퍼 사흘도막을 나에게만 성을 물으니(p.552),
허감사가 계속 나흘도막을 자기 성을 물었을 적에 이상허다 혔는디(p.558),
내가 그 새 메칠도막 집이를 못둘왔는디 일이 바뻐서(p.559).

47) 전북대에 근무하고 있는 3.40대 토박이 화자들인 김규남(완주군 출신), 서혁(완주 봉동), 그리고 황용주(전북 부안군 출신) 선생들의 증언을 얻은 바 있다.

www.kci.go.kr

따라서 이 글에서 근대국어 또는 현대국어의 의존명사에 대해서 필자가 약간 언급한 사항들이 있다면, 이것은 전혀 선학들의 업적을 이용하여 가능하였을 뿐이다. 여러 연구자들이 제시한 의존명사의 설정 기준을 나름대로 이해하면서도 끊임없이 필자를 괴롭히는 문제는 통상적인 의미변화에 의한 명사의 다의어(polysemy) 형성과, 여러 다의들 가운데 상호 유연성이 상실된 결과 독자적으로 분화되는 의존명사 단위 설정 사이에 있는 자의적인 경계 구분이었다. 예를 들면, 현대국어에서 '수'(手/數)는 모든 연구자들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소위 원형적인 의존명사의 목록에 포함된다. 그러나 각각 자립명사와 의존명사로서의 '수'(手/數)의 통합적 관계와 그 의미적 분화는 특별히 구분되지 않는다. 의존명사의 '수'가 나타내는 소위 변별적인 파생 의미 "수단"과 "방법"은 자립명사 '수'가 관용적인 특정한 문맥에서 발달시킨 다의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49]

5.2 이 글에서 근대국어 또는 19세기 국어에서의 의존명사의 체계를 규명하거나, 20세기 국어로의 전이의 모습을 고찰하려는 의도는 전연 없었다. 논의의 전개 과정에서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에서 '-(으)ㄹ+의존명사+존재동사'의 통사적 구성을 갖고 있었던 '셰'(勢)형이 적어도 16세기와 17세기 국어로 소급되는 역사적 연속성을 갖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성분은 적어도 19세기 후기의 남부방언 자료에서는 점진적인 '셰→슈'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의존명사 '셰'의 기능의 위축은 새로운 의존명사 '슈'(手/數)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았다. '수'(手/數)의 의존 명사적 잠재성이 있는 예가 16세기 국어에서부터 등장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근대국어의 후반기 단계에서 의존명사 '슈'가 발휘하는 생산성은 '-(으)ㄹ+의존명사+존재동사'의 통사 구성에서 문맥에 따른 의미의 추이에 따라 더욱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수단"이나 "방법"의 영역을 나타내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정하였다.

의존명사 '슈'의 출현 분포가 근대국어에서 확산됨에 따라서 이와 동일한 환경에서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던 의존명사 '길'(道), '법'(法), '일'(事) 등의 기능이 제거되고, 이어서 '슈'의 방향으로 단일화되었을 가능성을 19세기 후기의 국어방언 자료를 이용하여 제시하였다.

5.3 필자가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에서 궁금하게 여겼던 또 다른 형태인 '마듸'(時節)의 경우도 이미 15세기의 전형적인 문헌 자료에 특정한 문맥에서 선행 형태 'ᄆᆞᄃᆡ'로 등장하고 있었다. 15세기 국어에서 사용된 'ᄆᆞᄃᆡ'의 예들은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에서 관용적으로 쓰이는 통사적 구성 '-(으)ㄹ+마듸'에 어느 정도 접근되어 있었다. 이 성분이 특정한 문맥에서 재분석된 이차적 의미인 "동안", 또는 "즈음"은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의 사례들과 일치하였다. 또한, 일찍이 강성일(1976/1993)에서 이와 같은 통사적 구성을 이루고 있는 15세기의 'ᄆᆞᄃᆡ'가 중세국어에서 전형적인 의존명사 가운데 하나로 설정되어 있음을 알았다.

---

48) 현대 서남방언에서 사용되는 의존명사들의 유형과, 그 통사적 환경에 대한 종합적 기술은 이기갑(1997)과 배주채(1998)에서 시도되었다.

49) 안주호(2005)는 현대국어에서 생산적으로 쓰이고 있는 '-(으)ㄹ 수 있-/없-'의 양태적 의미와 통사적 특성을 규명하고, 양태 기능으로 문법화 하는 과정을 제시한 바 있다. 안주호 교수는 이 논문(2005)에서 '-(으)ㄹ 수 있-' 의 구성은 다음과 같은 문법화의 단계와 의미의 발달을 수행한다고 가정하였다. 즉, (1) 자립명사 '방법'이나 '도리'를 뜻하는 '수'(術)에서 '능력', '가능성'을 뜻하는 의존명사로. (2) '-(으)ㄹ 수 없-'과 같은 부정 형식에서 주어의 능력이나 허용을 나타내는 의무양태로. (3) '-(으)ㄹ 수 있-'의 구성에서 긍정 형식의 의무 양태에서 의미의 확장으로 화자의 주관적인 인식 양태가 결과된 것이다.

www.kci.go.kr

그 반면, 중세국어의 의존명사 설정에 대한 연구에서 허웅(1975)에서나 고영근(1995)에서 이 'ᄆᆞᄃᆡ'의 용례가 관찰된 바가 없었다. 필자가 서론에서 제시한 의존명사화의 두 가지 조건에 의해서 중세국어와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에서의 'ᄆᆞᄃᆡ'는 의존 명사적 속성을 갖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 중세국어의 'ᄆᆞᄃᆡ'형의 존재는 16세기 이후 격식어를 반영하는 문헌어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춘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18세기 후반을 기점으로 하여 19세기 중반 일본에서 작성된 일련의 한국어 학습서 계통에 다시 시간 의존명사의 신분으로 '-(으)ㄹ+ᄆᆞᄃᆡ'의 구성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16세기 이후 17.8세기까지 문헌상으로 보이지 않는 의존명사 'ᄆᆞᄃᆡ'의 존재는 어떠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가 여기서 분명하게 제시할 수 없었다.

또한, 19세기 후기 중부방언 자료인 『독립신문』에서 의존명사 'ᄆᆞᄃᆡ'는 '-(으)ㄴ+ᄆᆞᄃᆡ'의 통사적 환경에서 시간의 개념이 제거되고 명제에 대한 화자의 양태성이 강화된 " 경우" 또는 "상황"의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제시하였다. 19세기 후기 국어 자료에서 의존명사 '마ᄃᆡ'가 앞선 단계에서부터 사용되어 온 시간의 '즈음', '적', 또는 '째'(時) 등으로 빈번하게 교체되는 현상을 관찰하고, 이러한 변화의 방향은 공시적으로 불투명하게 된 의존명사를 동일한 의미체계에 있는 투명한 대체 성분으로 교환하려는 노력의 표현으로 이해하였다. 시간의 의존명사 'ᄆᆞᄃᆡ'의 폐용은 아울러 또 다른 환경에 사용되었던 "경우" 또는 "상황"의 의미를 갖고 있었던 'ᄆᆞᄃᆡ'까지 파급되어 같은 운명을 걷게 하였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에서는 의존명사 '마듸' 대신에, 이와 성격이 유사한 또 다른 의존명사인 '도막'이 사용되기 시작하여, 오늘날에는 전북방언과 전남방언 일대에 확산되어 쓰이고 있는 사실을 관찰하였다.

5.4 이 글에서는 근대국어의 의존명사 체계에서 지금까지 언급된 "수단" 또는 "방법"을 의미하는 양태성 의존명사 부류와, 시간성 의존명사 부류들의 내적 구조를 전체적으로 규명하지 못하였다. 먼저 이와 같은 작업을 선행하여야 여기서 취급된 단편적인 유기적 관계가 완전히 복원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이들 의존명사들이 자립명사로부터 문법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개별적인 의미변화의 통로를 지금까지 확립된 일반적인 의미 화용론적 변화의 원리(Traugott & Dasher 2002)에 비추어 검증하지 못하였다.

참고문헌

강성일(1993), 『국어학 연구』, 동아대학교출판부.

고영근(1989), 『국어 형태론 연구』, 서울대출판부.

_____(1995), 『단어 · 문장 · 텍스트』, 한국문화사.

곽충구(1994), 『함북 육진방언의 음운론, -20세기 초 러시아 Kazan에서 간행된 문헌자료에 의한-』, 국어학총서 20. 태학사.

김동소(2003), 『한국어 변천사』(수정 제4쇄), 형설출판사.

www.kci.go.kr

_____(2007), 『한국어의 역사』, 정림사.
김현정(1997), “국어 명사의 문법화 과정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진호.황선엽.이승희(2001), “어말 ‘C+ᄋᆡ/의’에서의 ‘C+ᄋᆞ/으’ 탈락 현상에 대하여”, 『형태론』, 3권 2호. 231-239.
백두현(1992), 『영남 문헌어의 음운사 연구』, 국어학 총서 19, 국어학회.
_____(2003), 『현풍곽씨 언간 주해』, 태학사.
배주채(1998), “서남방언”, 877-932, 『문법연구와 자료』(서태룡 외 공편), 태학사.
류성기(1997), “근대국어 형태”, 55-108,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2, -근대 국어-, 국립국어연구원.
서정수(1996), 수정증보판 『국어문법』, 한양대학교 출판원.
안귀남(1999ㄱ), “이응태 부인이 쓴 언간의 국어학적 의의”, 『인문과학연구』, 안동대학교.
_____(1999), “고성 이씨 이응태묘 출토편지”, 『문헌과 해석』통권 6호.
안주호(1997), 『한국어 명사의 문법화 연구』, 한국문화사.
_____(2001), “한국어의 문법화와 역문법화 현상”, 93-112, 『담화와 인지』제8권 2호.
_____(2005), “‘-ㄹ 수 있-’ 구성의 특징과 문법화”, 207-232, 『한국언어문학』제53집.
왕문용(1988), 『근대국어의 의존명사 연구』, 한샘.
_____(1991), “의존명사”, 『국어 연구 어디까지 왔나』(서울대 국어연구회편), 동아출판사.
_____(2003), “의존명사의 신생과 소멸”, 『국어교육』112호, 273-295.
이기갑(1983), “전남 방언의 매인이름씨 -그 공시태와 통시태-”, 73-91.『언어학』6.
_____(1997), “서남 방언의 의존 명사”, 525-550, 『국어학 연구의 새 지평』, 태학사.
_____(2003), 『국어방언문법』, 태학사.
이기갑 외(편.1997),『전남방언사전』, 태학사.
이기문(1980), “19세기 말엽의 국어에 대하여”, 255-266, 『남광우박사 화갑기념논총』, 일조각.
이병근(1970), “19세기 후기 국어의 모음체계”, 『학술원논문집』(인문, 사회) 9.
_____(1976), “19세기 국어의 모음체계와 모음조화”, 『국어국문학』72.73호.
이병모(1995), 『의존명사의 형태론적 연구』, 학문사.
이선영(1995), “국어사전에서의 형식명사의 처리에 관한 고찰”, 157-170,『국어학논집』2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편).
이성하(2000), 『문법화의 이해』, 한국문화사.
이숙경(2006), “후기 근대국어의 문법화”, 283-326. 『후기 근대국어 형태의 연구』(홍종선 외), 역락출판사.의 문법화
이주행(1983), “불완전명사에 대한 연구-‘수’와 ‘줄’을 중심으로”, 265-274,『국어교육』 44.45호.
_____(1987), “근대국어의 의존명사에 대한 소고”, 197-216,『국어교육』 59.60호.
_____(1988), 『한국어 의존명사의 통시적 연구』, 한샘.
이현희(1994), “19세기 국어의 문법사적 고찰”, 57-81,『한국문화』15.
임동훈(1991), “현대국어 형식명사 연구”, 『국어연구』103호, 국어연구회.
정재영(1996), “19세기말부터 20세기초의 한국어문”, 1-31,『한국문화』.
조항범(1998),『순천 김씨묘 출토 간찰』, 태학사.
주갑동(2005), 『전라도 방언사전』, 수필과비평사.

www.kci.go.kr

채현식(1995), “형식명사의 동요상황에 대하여”, 191-208,『국어학논집』2(서울대 국어국문학과 편).
최전승(1986),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의 음운현상과 그 역사성』, 한신문화사.
최형용(1997), “형식명사 · 보조사 · 접미사의 상관관계”, 국어연구』148호, 국어연구회.
한국학중앙연구원 편(2005), 『조선 후기 한글 간찰(언간)의 역주 연구』1, 태학사,
허 웅(1975),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_____(2000), 고침판『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샘문화사.
홍기문(1966),『조선어 력사문법』, 사회과학원출판사.
황문환(2002), “조선시대 언간과 국어생활”, 『새국어생활』제12권 2호, 여름, 국립국어연구원.
_____(2002ㄱ), 『16, 17세기 언간의 상대경어법』, 국어학총서 35, 국어학회.
홍윤표(1994), 『근대국어 연구』, 태학사.
_____(1997), “한글자료의 성격과 해제”, 97-140, 『국어사 연구』(국어사연구회), 태학사.
Brinton, Laurel J. & E. C. Traugott(2005), *Lexicalization and Language Chan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hambers, J.K.(2003), *Sociolinguistic Theory*, 2th Edition, Blackwell Publishing.
Fischer, Olga(2007), *Morphosyntactic Change*, Functional and Formal Perspectives, Oxford University Press.
Lass, Roger(1987). *The Shape of English,* Structure and History, J.M. Dent & Sons Ltd.
Eckardt, Regine(2006), *Meaning Change in Grammaticaliz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Heine, Bernd & Tania Kuteva(2002), *World Lexicon of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Labov, William(1972). *Sociolinguistic Patterns*, Univ. of Pennsylvania Press.
Ramstedt, G. J.(1939), *A Korean Grammar*, Helsinki.
Traugott, Elizabeth & R. Dasher(2002), *Regularity in Semantic Change*, Cambridge Studies in Linguistics 97, CUP.
Trudgill, Peter(2002), *Sociolinguistic Variation and Change*, Georgetown Univ. Press.

<영문초록>

www.kci.go.kr

On the Grammaticalization of Some Bound Nouns and Historical Continuation in Late 19th Century Korean

Choe Jeon-seung(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e original motivation to write this paper was some simple curiosities on the frequent occurrences of mystical grammatical forms such as *sye*(세) and *matiy*(마듸), which functioned like bound nouns or so-called the postmodifiers in the regional materials of late 19th century South-western dialects. In now-a-days dialect survey field works on this South-western regions, we can't find out any native speakers, who make use of those grammatical forms or at least some reflexes in natural every-day vernaculars. In the time of late 19th century of South-western dialects, one of above mentioned bound nouns *sye*(세) appeared typically after fixed modifier with meaning of "has no choice but to do" or "can not help doing". So, what happened in the statues of those grammatical forms during the advent of Modern Korean at the turns of 20th century?

In the course of investigating those grammatical forms, inadvertently I have come across the much controversial realms of bound noun system in Recent Korean as well as that of Modern Korean. But, at any costs, I have really no intention to participate belatedly in the group of researchers who have had much arguments and armed with strong theories in order to defend their own constructed system of bound nouns in Recent or Modern Korean.

In the first part of my paper, I simply suggested that the assumed mystical grammatical form of *sye*(세) have occurred as early as at 16th century Korean in the colloquial style of every day life, especially in the hangeul letter writings. With the help of newly developed grammaticalization theoy(Hopper & Traugott 2003), I argued that the loan word from Chinese '勢'(force), which functioned free noun at first happened to occur repeatedly in the fixed conventionalized syntactic construction such as "-(으)ㄹ+ 세+ 있-/없-". In the course of time with semantic change via metaphorization the free noun '勢'(force) in this exclusive syntactic structure was transformed gradually into grammatical form, which has grammaticalized into bound noun. I maintained convincingly with much contemporary linguistic materials that the other case of grammatical form *matiy*(마듸), which appeared as early as in Middle Korean already with much abstracted meaning in the exclusive syntactic environments underwent the same path of grammaticalization.

In the second part of my paper, I have surveyed the dynamic relationship of the grammatical functions between another newly emergent grammatical form such as '슈'(手/數) with old traditional *sye*(세) in terms of over-all frame of bound noun system. With much contemporary dialect materials I suggested a strong tendency in the direction of change 세→슈.

www.kci.go.kr

Key words: late 19th century South-western dialects, emergent grammatical form, grammaticalization, bound noun system in Recent Korean.

www.kci.go.kr